

대단원 설정 이유

이 단원은 문학 갈래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문학적 형상화의 방법을 이해하며, 나아가 문학 작품이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문학의 갈래를 나누는 기준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단원에서는 서정, 서사, 극으로 분류한 3분법에 교술 갈래를 더한 4분법 체계를 바탕으로 문학의 갈래를 공부하게 된다. 이러한 갈래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구체적인 문학의 종류인 역사적 갈래와 구분되며, 시대를 초월하여 세계 문학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관념적 갈래 또는 이론적 갈래라고 한다. 이와 함께 모든 문학 작품은 본질적으로 유기적 구조물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감상해야 할까?
소설 속에는 현실이 담겨 있는 걸까?
연극과 드라마, 영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뭘까?
내 글이 나답다니, 그건 무슨 뜻일까?



수업 진도 체크 ✓

차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반	도입	(1) 서정 갈래의 이해			(2) 서사 갈래의 이해				(3) 극 갈래의 이해				(4) 교술 갈래의 이해		정리		



문학

문학의 빛깔

- 3차시** 01. 서정 갈래의 이해
 - ▶ 〈슬픔이 기쁨에게〉_정호승
- 5차시** 02. 서사 갈래의 이해
 - ▶ 〈달밤〉_이태준
- 5차시** 03. 극 갈래의 이해
 - ▶ 〈파수꾼〉_이강백
- 3차시** 04. 교술 갈래의 이해
 - ▶ 〈통곡할 만한 자리〉_박지원

지도 방안
 이 단원에서는 서정, 서사, 극, 교술 등 주요 갈래의 대표적인 작품을 감상하며 각 갈래의 내용과 형식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문학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작가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형상화한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문학 작품을 보다 폭넓게 수용하고 감상하는 태도를 생활화하도록 지도한다.

대단원 성취기준			
단원	성취기준	학습 요소	내용
소단원 (1)	• 국어05-01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 작품 전체와 구성 요소의 관계 • 갈래의 개념과 특징, 문학적 형상화 방법	• 문학 작품은 언어라는 형식, 가치 있는 주제라는 내용,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표현이라는 세 측면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조물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소단원 (2)			• 문학 갈래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문학적 형상화의 방법을 이해하며 문학 활동을 한다. 문학의 이론적 갈래인 서정, 서사, 극, 교술의 4분법 체계에 따라 문학 작품을 형상화하는데 어떠한 요소들이 기여하는지 이해하도록 한다.
소단원 (3)	• 국어05-02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소단원 (4)			



- 문화 향유 역량은 국어로 형성·계승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내면화하여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생산하는 능력이다.
- 자기 성찰·개발 역량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탐색하며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재능과 자질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다.

대단원 길잡이

| 학습 목표 |

-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단원 한눈에 보기

애니메이션

1

서정 갈래의 이해

- 서정 갈래의 개념과 특징 알아보기
- 시 <슬픔이 기쁨에게>를 감상하며 문학적 형상화 방법 이해하기
- 작품 전체와 구성 요소의 관계 이해하기
 - 독특한 발상으로 '슬픔'의 가치를 표현한 시

서사 갈래의 이해

- 서사 갈래의 개념과 특징 알아보기
- 소설 <달밤>을 감상하며 문학적 형상화 방법 이해하기
 - 사회로부터 소외된 인물의 삶을 따스한 시선으로 그린 소설

지도 방안

이전 학년에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려 배경지식을 진단해 보도록 하고, 점검 결과와 '단원 한눈에 보기'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작성해 보도록 지도한다.

스스로 세우는 학습 계획

-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점검해 봅시다.

(1) 서정 갈래의 이해

- 중 1 문학(2) ▶ • 비유와 상징의 표현 효과를 이해하고 있는가? ○ ×
- 초 5~6 문학(1) ▶ • 문학이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가? ○ ×

(2) 서사 갈래의 이해

- 중 2 문학(3) ▶ •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 ○ ×

(3) 극 갈래의 이해

- 초 5~6 문학(4) ▶ • 일상생활의 경험을 이야기나 극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 ×

(4) 교술 갈래의 이해

- 중 2 문학(9) ▶ •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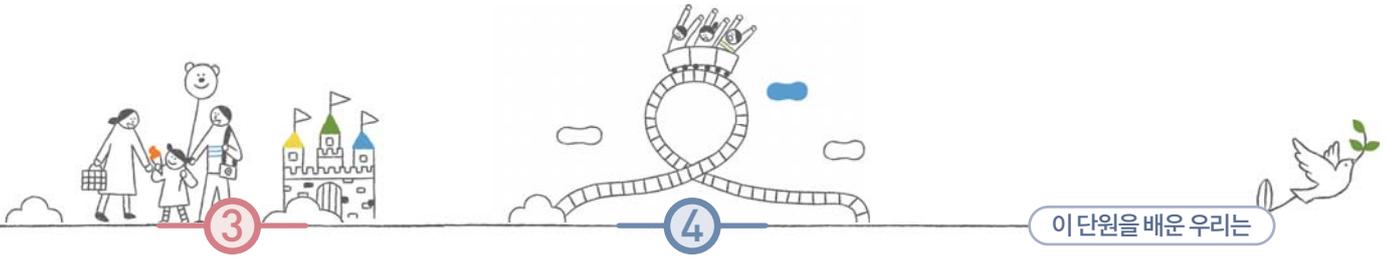
- 이 단원을 배운 후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

.....





3

극 갈래의 이해

- 극 갈래의 개념과 특징 알아보기
- 희곡 <파수꾼>을 감상하며 문학적 형상화 방법 이해하기

→ 권력의 위선을 우화적으로 비판한 희곡

4

교술 갈래의 이해

- 교술 갈래의 개념과 특징 알아보기
- 고전 수필 <통곡할 만한 자리>를 감상하며 문학적 형상화 방법 이해하기

→ 새로운 시각으로 요동 별판에서 느낀 감회를 묘사한 수필

이 단원을 배운 우리는

- 문학에 담긴 삶의 가치와 의미를 탐색하고 내면화하면서 **자기 성찰·계발 역량**을 기를 수 있다.
- 서정, 서사, 극, 교술 갈래의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여 문학을 수용하고 생산하면서 **문화 향유 역량**을 기를 수 있다.

마음이 자라는 독서



• 이 단원과 관련된 책을 도서관에서 찾아 읽어 봅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제목 • 글쓴이 •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느낀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제목 • 글쓴이 •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느낀 점
--	--

지도 방안

이 대단원은 문학 작품을 감상한 뒤, 문학의 갈래에 대해 이해하고 문학의 본질을 살펴보는 활동을 하게 된다. 교과서에 제시된 작품만으로는 갈래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학습하기 어려우므로, 갈래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품 목록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이 가운데 작품을 선택하여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또는, 모둠별로 특정한 갈래를 선정한 다음, 갈래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작품들을 골라 목록을 만든 뒤에 목록에서 각자 작품을 선정하여 독서를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 **독서 일지 쓰기의 시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독서 일지를 쓰려면 먼저 읽을 책을 선정해야겠지요? 어디에서 책을 골라야 할지 막막하다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인 학교 도서관을 방문해 봅시다. 학교 도서관에 계신 사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학교 도서관 이용도 어렵지 않아요.

01

▶ **한** 개념 정리

시경 갈래의 이해

지도 방안

시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시에 대한 평소 생각 등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떠올려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시와 노래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게 하는 것도 좋다.

생활 속 다양한 질문

- 소설처럼 시에도 주인공이 있을까?
- 대중가요로 불리는 시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 시에서의 화자는 시인과 같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일까?
- 시를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생활 생각 열기 지문 듣기

나는 문학의 여러 갈래 가운데 시를 가장 좋아해.

서정, 서사, 극, 교술
비교적 길이가 짧은 편이거든.

나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시의 운율
그런데 시는 금방 읽기는 해도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참 어려워.

왜 그런지 몰라도 시에 쓰인 말은 일상에서 쓸 때와는 느낌이 달라.

시어의 함축성
분명 같은 단어가 맞는데 말이야…….

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감상해야 할까?



●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시적 화자와 청자를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한다.



생각과 정서를 형상화하는 방식을 알아보고, 그 효과를 이해한다.



문학의 본질을 설명한 글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현대시를 감상하며 문학적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고, 문학의 본질을 탐구해 보자.

P한 제재 정리

작품 동영상

지문 틀기

슬픔이

- '나', 화자
- 이타적인 존재
-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님.

기쁨에게

- '너', 청자
- 이기적인 존재
- 사회적 약자에게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함.

청자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

- '너'에게 슬픔과 기다림에 대해 가르쳐 주고자 함.
- '너'와 함께 더불어 사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함.

반성과 깨달음을 촉구함.

정호승

작품의 구성

1~6행	이기적인 '너'에게 슬픔을 주고자 함.
7~13행	무관심한 '너'에게 기다림을 주고자 함.
14~19행	슬픔의 힘을 이야기하며 '너'와 함께 걸어가고자 함.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교훈적, 비판적, 의지적
제재	슬픔, 기쁨
주제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사는 삶의 추구
특징	①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② '슬픔'과 '기쁨'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사상을 전개함. ③ 특정 음운, 어미, 음보 등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슬픔 기쁨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 '겠다'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화자의 의지를 강조함.
슬픔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은 역설적 표현 사용(역설법)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너'의 모습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 이기적인 '너'에게 슬픔을 주고자 함.
소외된 약자를 멸시하지 않고 평등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얼굴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고통스럽고 소외된 삶의 처지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최소한의 관심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함.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타인의 슬픔에 공감할 줄 모름.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 무관심한 '너'에게 기다림을 주고자 함.
소외된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약자에게는 고통, 강자에게는 기쁨을 주는 존재
보리밭에 내리던 물눈들을 데리고
약자를 감싸는 존재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모든 이들이 평등한 공간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힘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슬픔의 힘을 이야기하며 '너'와 함께 걸어가고자 함.
슬픔의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지가 드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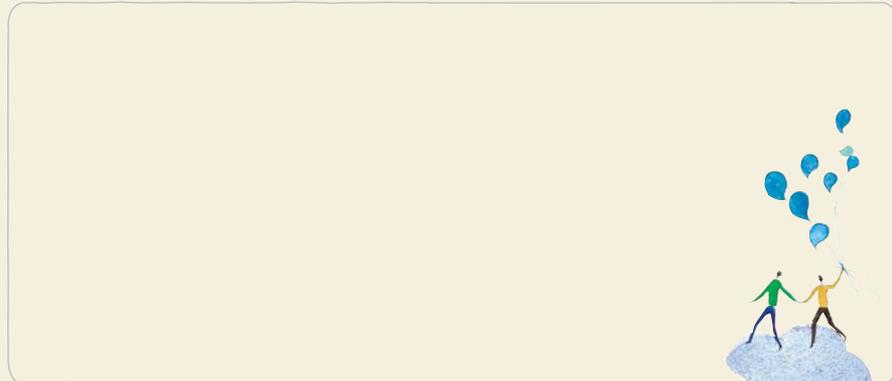


내가 읽은 <슬픔이 기쁨에게>

📖 작품의 내용 정리하기

1~6행	이기적인 '너'에게 슬픔 을/를 주고자 함.
7~13행	무관심한 '너'에게 기다림 을/를 주고자 함.
14~19행	슬픔의 힘을 이야기하며 '너'와 함께 걸어가 고자 함.

📖 작품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더 찾아보고 싶은 점 써 보기



정호승(1950~)

작가 동영상

시인. 현대 사회의 그늘진 단면에 관심을 두고, 소외된 이웃에게 보내는 애정을 따뜻한 시어로 그려 냈다. 주요 작품으로 <또 기다리는 편지>, <맹인 부부 가수>, <수선화에게> 등이 있다.

→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담은 시

→ 이루지 못한 사랑의 쓸쓸함과 외로움을 노래한 시

한 걸음 더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공감과 연민,
그들과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에 관한 시

- 정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전문>

나는 그들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
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 햇빛도 그들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 나무 그늘에 앉아 /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 나무 그늘에 앉아 /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는 사람의 모습은 /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1

서정 갈래의 문학적 형상화 방법 탐구하기

서정시에서 작가는 독자에게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시적 화자를 설정한다.

지도 방안

화자와 청자를 찾고,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작가, 화자와 청자, 독자의 관계를 이해해 보는 활동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와 '너'를 찾고, 작품의 제목을 고려하여 답할 수 있도록 한다.

지도 방안

청자의 성격을 파악해 보기 위한 활동이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행동을 통해 청자의 이기적인 속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자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 또한 이해할 수 있다.

지도 방안

청자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구절을 찾는 활동이다. 화자가 청자의 행동을 설명한 뒤에 '-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찾아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지도 방안

청자의 특성과 화자의 태도를 바탕으로 하여 작품의 제목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 활동이다. 청자가 '기쁨'이고 화자가 '슬픔'이라는 점을 알고, 다양한 답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1 <슬픔이 기쁨에게>의 화자와 청자를 살펴보고 이 작품의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해 보자.

(1) 이 작품의 화자와 청자를 찾아보자.



(2) 다음 시구에서 알 수 있는 청자의 모습을 정리해 보자.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뚝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청자의 모습

예시답

- 타인의 고통에 개의치 않는다.
- 타인에게 무관심하다.

(3) 청자의 행동에 대해 화자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찾아 써 보자.

-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 예시답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 _____

(4) (2)와 (3)을 바탕으로 하여 작가가 이 작품의 제목을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정한 까닭을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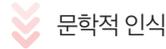
- 예시답
- 슬픔이 기쁨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에 관한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슬픔과 기쁨에 관한 일반적 인식이 역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 기쁨에게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슬픔의 태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시어와 시구의 의미를 이해하며 이 작품의 주제를 파악해 보자.

(1) ‘슬픔’과 ‘기쁨’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작가의 문학적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자.

일반적 인식

예시답 슬픔은 회피해야 할 부정적 감정이고, 기쁨은 추구해야 할 긍정적 감정이다.



작가의 인식

예시답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기쁨은 이기적인 존재이고,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슬픔은 이타적인 존재이다.

지도 방안

대상을 대하는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과 차별화된 작가의 인식, 즉 ‘낯설게하기’에 담긴 의도를 알아보는 활동이다. 작가의 문학적 인식을 토대로 하여 시의 함축성이 구현될 수 있음을 지도한다.

시어의 함축성

함축성이란 표현의 의미를 한 가지로 나타내지 않고, 문맥을 통하여 여러 가지 뜻을 암시하거나 내포하는 성질을 말한다. 따라서 시어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가 아닌 문맥에 따른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된다.

지도 방안

사전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의 차이를 알고, 시어의 함축성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학생들이 시어의 의미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함박눈’과 ‘봄눈’의 함축적 의미는 무엇인지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

함박눈

예시답

- 가진 사람들에게 풍요롭고 포근한 존재
- 햇빛은 이들에게 추위와 고통을 주는 대상

봄눈

예시답

- 보리밭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여 싹을 틔우는 역할
-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감싸는 존재

지도 방안

특정한 표현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면서 작품 전체의 주제를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이 작품이 슬픔의 가치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 또한 이야기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유도한다.

(3) 다음 시구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의 주제를 파악해 보자.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예시답 이웃과 공감할 수 있는 슬픔의 가치를 알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갖고 더불어 사는 삶의 추구

참고 자료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

‘낯설게 하기’는 일상화되어 친숙하거나 참신하지 않은 사물이나 관념을 특수화하고 낯설게 하여 새로운 느낌을 갖도록 표현하는 예술적 기법을 말한다. 러시아의 문예학자 시클롭스키(V. Shklovsky)가 주장한 개념이다. 문학 작품은 리듬, 비유, 역설 등의 표현 방법을 활용하거나 플롯의 변형, 예상된 결말의 반전, 배경의 확장 등을 통해 친숙한 것을 낯설게 하고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미학적 효과를 획득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슬픔과 기쁨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통념을 뒤집고, 슬픔과 기쁨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슬픔과 기쁨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고, 삶의 태도를 반성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다음 시구를 낭독해 보고, 운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지도 방안

서정 갈래에서 운율이 어 떠한 방식으로 형성되는지 확인하는 활동이다. 주어진 시구를 소리내어 읽어 보고,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파악해 보도록 지도한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예시답

- 4음보를 반복하고 있다.
- '-겠다'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
- 특정 음운('ㄴ')을 반복하고 있다.

4 이 작품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파악해 보자.

지도 방안

이 작품에 주로 사용된 표현 기법인 의인법과 역설법이 사용된 부분을 본문에서 찾는 활동이다. 특히 의인법은 특정한 부분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시 전반에 걸쳐 드러나고 있음을 설명한다.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작품에서 찾아 정리해 보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예시답 시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음. ('슬픔'과 '기쁨'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음.)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된 말
 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예시답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지도 방안

이 작품에 사용된 의인법과 역설법이 주는 효과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활동이다.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 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2) (1)에서 살펴본 표현 방법이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예시답

- 슬픔과 기쁨을 의인화하여 대화를 건네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깨달음, 즉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슬픔'과 '기쁨'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학습 활동지

1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서정 갈래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예시답

- 가상의 존재인 시적 화자가 존재한다.
- 사전적 의미가 아닌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활용한다.
-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한다.
- 운율이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

2
 서정 갈래의 특징 정리하기

지도 방안

1의 활동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정 갈래의 특징을 정리해 보는 활동이다. 시적 화자, 시어의 함축성, 다양한 표현 방법, 운율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① 다음 글을 읽고, 문학 작품 전체와 구성 요소의 관계를 이해해 보자.

인간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다. 그 가운데 예술은 표현 욕구가 반영된 주요한 활동이다. 생각과 감정에는 본래 형태가 없는데 예술가는 여기에 미적 질서가 담긴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해서 예술을 창조한다. 이 과정이 **형상화**이다. 생각과 감정을 소리의 형식으로 형상화하면 음악이 되고, 색채와 형태의 형식으로 형상화하면 미술이 되며, 몸짓의 형식으로 형상화하면 무용이 되듯이 언어의 형식으로 형상화하면 문학이 된다. 문학은 이처럼 언어라는 형식을 벗어날 수 없는 예술이다.

그런데 모든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로 형상화하면 문학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문학은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공동체의 아름다움이나 진실과 같은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라는 형식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문학 작품은 언어라는 형식, 가치 있는 주제라는 내용, 형상화된 표현이라는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 문학을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은 언어 형식과 형상화된 표현을 포괄하여 형식이라 한 것이다.

문학의 각 구성 요소들은 서로 긴밀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문학 작품 속에 녹아 있는데, 이를 유기적 관계라고 한다.

생물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낼 수 없는.

지도 방안

문학 작품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물임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뒷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들을 찾아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지도 방안

〈슬픔이 기쁨에게〉에 구현되어 있는 문학의 본질을 파악하는 활동이다. 뒷글의 내용과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슬픔이 기쁨에게〉의 구성 요소들을 정리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 문학은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는지 정리해 보자.

예시답 문학은 내용, 형식, 표현으로 이루어진다.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한다.)

(2) (1)을 바탕으로 하여 〈슬픔이 기쁨에게〉의 구성 요소들이 작품 전체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예시답 이 작품은 '슬픔의 가치와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이라는 가치 있는 내용을 시라는 형식을 통해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 운율, 의인법과 역설법 등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의 형식을 통해 이에 어울리는 적절한 표현을 활용하여 그려 내고 있으므로 구성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소단원 정리하기

지도 방안

이 소단원은 서정 갈래의 개념과 특징, 문학적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고, 작품 전체와 구성 요소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이다. <슬픔이 기쁨에게>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참고 자료

평가 자료

- 소단원 평가
- 쪽지 시험
- 어휘 평가
- 서술형 평가

● 서정 갈래

개념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운율이 있는 압축된 언어로 노래하는 문학 양식.

하위 갈래

고대 가요, 향가, 고려 속요, 시조, 민요, 한시, 현대시 등

● 시의 특징

- 시적 화자가 등장하여 대상에 대한 인식과 정서를 드러낸다.
- 운율을 가진 언어를 활용하여 음악성을 형성한다.
- 비유와 상징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한다.
-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심상을 활용하여 정서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문학의 본질

- 문학이란 가치 있는 주제를 언어 형식에 어울리는 표현 방법으로 형상화한 결과물이다.
-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문학 작품을 이루게 된다.

● <슬픔이 기쁨에게>의 시적 화자

작품

화자 슬픔



청자 기쁨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슬픔'이 갖는 긍정적 가치를 역설하고, 이기적인 '기쁨'에게 이를 일깨워 주고자 한다.

지도 방안

어휘 점검하기

시의 정서와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학습하는 활동이다. 낙관, 비판, 희망, 절망, 예찬, 체념, 탈속, 의지, 비판, 관조, 반성, 자조 등 다양한 어휘들을 추가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 다음은 화자의 정서 또는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제시된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써 보자.

보기

애상

연민

냉소

(1)

쌀쌀한 태도로 비웃음.



냉소

(2)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



연민

(3)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함.



애상



02

▶ **한** 개념 정리

서사 갈래의 이해

지도 방안

서사 갈래는 허구성을 기반으로 한 상상의 세계를 그려 낸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느끼는 까닭은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다시 말해 개연성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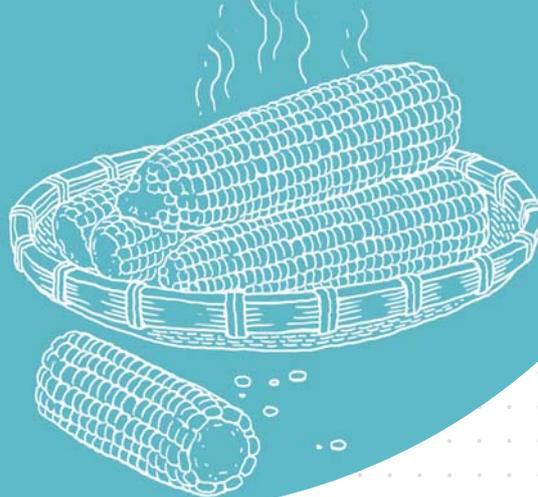
생활 속 다양한 질문

- 소설에서 말하는 이는 주인공일까?
- 서사 갈래에는 소설 이외에 무엇이 있을까?
- 소설에서 말하는 이와 시에서 말하는 이는 어떻게 다를까?
- 소설을 읽을 때 느끼는 재미는 소설의 어떤 특징에서 오는 것일까?

생활 생각 열기 지문 듣기

어릴 때 나는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옛날이야기를 참 좋아했어.
 할머니께서 쪄 주신 옥수수를 먹으면서 이야기 속에 푹 빠지곤 했지.
 이야기 속 주인공의 말과 행동, 사건이 모두 진짜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때는 옛날이야기들을 모두 실재라고 믿었지 뭐야.
 그런데 지금도 소설을 읽을 때면 비슷한 느낌이 들어.

소설 속 인물과 사건이 정말 현실 어딘가에 존재하는 건 아닐까 싶거든.
개연성이 느껴지기 때문
소설 속에는 현실이 담겨 있는 걸까?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허구적임.



●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등장인물의 특징을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다.



배경의 역할과 결말의 의미를 정리하고, 그 문학적 효과를 알아본다.



서사 갈래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갈래적 특성을 이해한다.

현대 소설을 감상하며 문학적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고, 문학의 본질을 탐구해 보자.

P **한** 제재 정리

작품 동영상

지문 듣기

달밤

핵심 정리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성격	서정적, 애상적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배경	시간: 1930년대 일제 강점기 / 공간: 서울 성북동
제재	각박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한 인물의 삶
주제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못난이 '황수건'의 삶에 대한 연민
특징	① 세밀하고 서정적인 묘사를 통해 인물과 사건을 선명하게 제시함. ② 주인공에 관한 일들을 나열한 에피소드식 구성을 취하고 있음. ③ 배경이 사건의 비극성을 심화시키지 않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독자에게 여운을 남김.



이태준

발단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엿새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공간적 배경 밀어 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1인칭 서술자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하였다.

5 뭐 바깥이 킁킁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짹 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 주인공. 우둔하고 천진함.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란 것이 드러났다.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 주었다.

10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대저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띈다.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 때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런 눈을 가지고,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는 손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돋워 주는 것이다. ▶ ‘나는 첫 만남에서 황수건이 못난이임을 알게 됨.

15 전개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열 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짹 지르는 소리로, “아, 이 덕이 문안서…….”

🗨️ ‘나는 ‘성북동’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예시답] 사대문 밖에 위치한 ‘시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저(大處) 도회지. 사람이 많이 살고 상공업이 발달한 번잡한 지역.
문(門)안 사대문 안. 조선 시대에 서울에 있던 동쪽의 흥인지문, 서쪽의 돈의문, 남쪽의 숭례문, 북쪽의 숙정문 안쪽을 이룸.

📍 '나'의 집에 온 신문 배달부가 합비를 입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 [예시답] 신문 배달 일을 하고는 있지만 배달 업소에 정식으로 채용된 직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 합비 일본말로 '등이나 깃에 상호가 찍힌 겹옷'을 이르는 말.

하면서 들어섰다. 잡담 제하고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넌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저…… 문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한다. 보니 합비는 안 입었으되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였다.

원배달이 아닌 보조 배달부이기 때문에

“그렇소. 신문이오?”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저, 저 건너 쪽에만 가 찾았습쇼. 제기…….”

5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들여뜨리며,

“그런뎡쇼, 왜 이렇게 쪼꼬만 집을 사구 와 겠쇼? 아, 내가 알았더라면 이 아래 큰

자신의 속생각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황수건

개와집도 많은걸입쇼…….”

한다. 하 말이 황당스러워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뺨뺨 깎은 머리로되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 데다 옆으

황수건의 외모에 대한 묘사①

10

로 보니 짱구 대가리다.

“그렇소? 아무튼 집 찾느라고 수고했소.”

하니 그는 큰 눈과 큰 입이 일시에 히죽거리며,

“뭇입쇼, 이게 제 업인뎡쇼.”

하고 날래 물러서지 않고 목을 길게 빼어 방 안을 살핀다. 그러더니 묻지도 않는데,

“저는입쇼, 이 동네 사는 황수건이라 합니다…….”

하고 인사를 붙인다. 나도 각듯이 내 성명을 댔다. 그는 또 싱글벙글하면서,

“댁엔 개가 없구먼입쇼?”

한다.

“아직 없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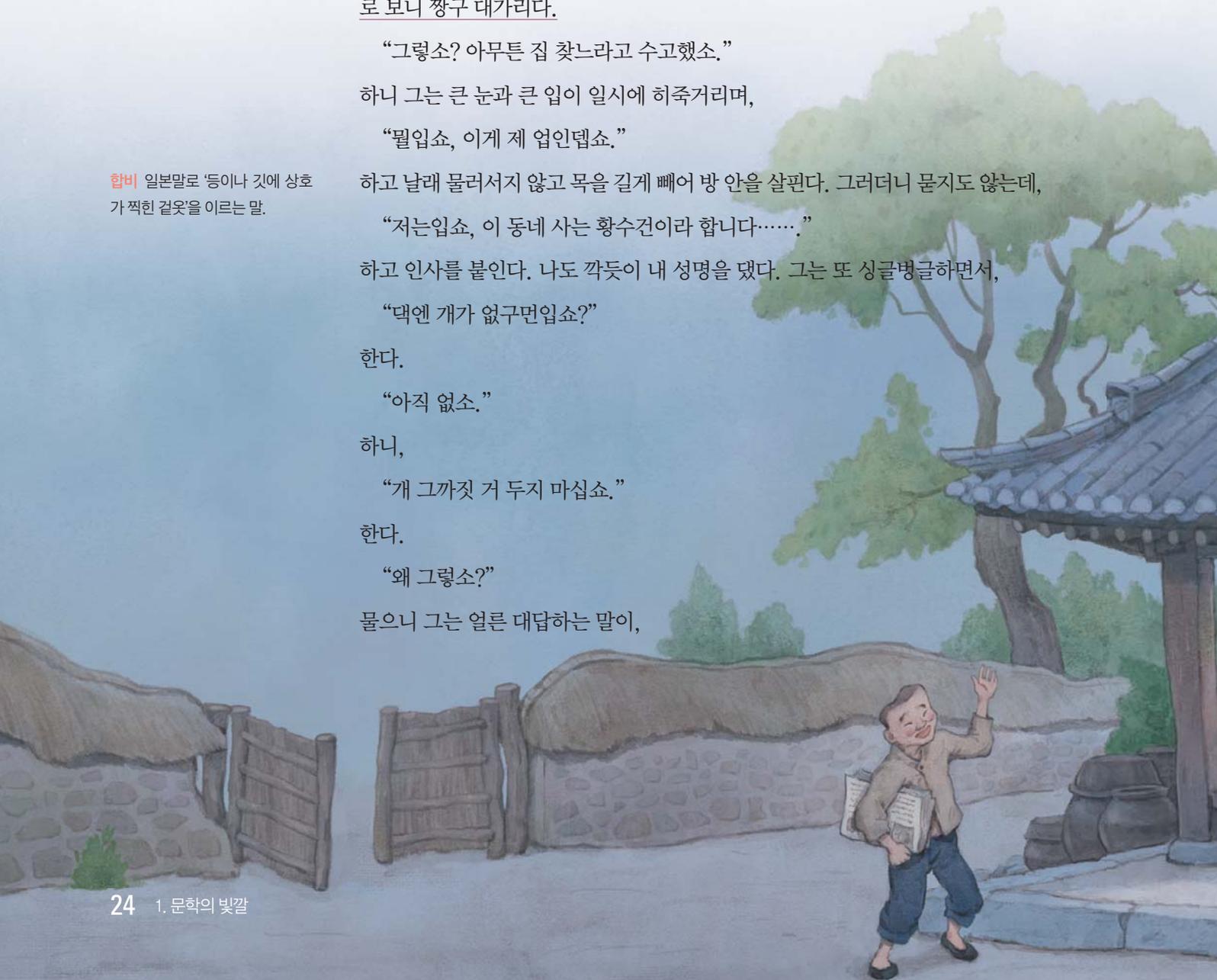
하니,

“개 그까짓 거 두지 마십쇼.”

한다.

“왜 그렇소?”

물으니 그는 얼른 대답하는 말이,



“신문 보는 집엔입쇼, 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한다. 이것 재미있는 말이다, 하고 나는,

“왜 그렇소?”

하고 또 물었다.

- 5 “아, 이 뒷동네 은행소에 댕기는 집엔입쇼, 망아지만 한 개가 있는덱쇼, 아, 신문 배달할 수가 있어압쇼.”

“왜?”

“막 깨물라고 덤비는걸입쇼.”

한다. 말 같지 않아서 나는 웃기만 하니 그는 더욱 신을 낸다.

- 10 “그놈의 개, 그저 한번, 양떡을 멕여 대야 할 텐데…….”

하면서 주먹을 부르대는데 보니,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겨 반비레로 작고 가느다랗다.
황수건의 외모에 대한 묘사②

“어서 곤할 텐데 가 자시오.”

하니 그는 마지못해 물러서며,

“선생님, 참 이 선생님 편안히 주몹쇼. 저희 집은 여기서 얼마 안 되는걸입쇼.”

하더니 돌아갔다. ▶ 신문 보조 배달부 황수건과 ‘나의 첫 만남’

🗨️ 황수건이 신문 보는 집에 개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까닭은 무엇일까?

📖 [예시답] 신문을 돌리다가 개가 덤벼서 물릴 뻔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부르대다 남을 나무라거나 하는 듯이 거친 말로 야단스럽게 떠들어 대다.



그는 이튿날 저녁, 집을 알고 오는데도 아홉 시가 지나서야,

“신문 배달해 왔습니다.”

하고 소리를 치며 들어섰다.

“오늘은 왜 늦었소?”

물으니,

“자연 그럽죠.”

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자기는 워낙 이 아래 있는 삼산학교에서 일을 보다 어떤 선생하고 뜻이 덜 맞아

「: 황수건의 삶에 대한 정보가 요약적으로 드러남.

나왔다는 것, 지금은 신문 배달을 하나 원배달이 아니라 보조 배달이라는 것, 저

희 집엔 양친과 형님 내외와 조카 하나와 저희 내외까지 식구가 일곱이란 것, 저

희 아버지와 저희 형님의 이름은 무엇무엇이며, 자기 이름은 황가인 데다가 목숨

수 자하고 세울 건 자로 황수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랑 수건이라고 놀려서 성

북동에서는 가가호호에서 노랑 수건 하면 다 자긴 줄 알리라고, 자랑스럽게 이야

기하다가 이날도,

“어서 그만 다른 집에도 신문을 갖다 줘야 하지 않소?”

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나갔다.

우리 집에서는 그까짓 반편과 무얼 대꾸를 해 가지고 그러느냐 하되, 나는 그와

지껄이기가 좋았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고, 그와는

아무리 오래 지껄이고 나도 웃음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 기분이 거뜨해지는 것도

좋았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중만 아니면 한참씩 그의 말을 받아 주었다.

「나는 황수건의 이야기를 성의 있게 들어 줌.

▶ '나는 황수건과의 대화를 통해 그의 개인사를 알게 됨.

어떤 날은 서로 말이 막히기도 했다. 대답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

야 할까 막혔다. 그러나 그는 늘 나보다 빠르게 이야깃거리를 잘 찾아냈다. 오뉴

월인데도 ‘꿩고기를 잘 먹느냐?’고도 묻고, ‘양복은 저고리를 먼저 입느냐 바지를

먼저 입느냐?’고도 묻고, ‘소와 말과 싸움을 붙이면 어느 것이 이기겠느냐?’는 등,

아무튼 그가 애깃거리를 취재하는 방면은 기상천외로 여간 범위가 넓지 않은 데

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다. 하루는 나는 ‘평생 소원이 무엇이나?’고 그에게 물어

보았다. 그는 ‘그까짓 것쯤 얼른 대답하기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면서 평생 소

원은 자기도 원배달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황수건의 소박한 소원

남이 혼자 배달하기 힘들어서 한 이십 부 떼어 주는 것을 배달하고 월급이라고

🗨️ ‘나’는 황수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예시답) ‘나’는 황수건과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하며 그를 친구처럼 생각한다.

반편(半偏) 반편이. 지능이 보통 사람보다 모자라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원배달에게서 한 삼 원 받는 터라, 월급을 이십여 원을 받고 신문사 옷을 입고 방
^{황수건의 소박하고 순진한 성품이 드러남.}
 울을 차고 다니는 원배달이 제일 부럽노라 하였다. 그리고 방울만 차면 자기도 뛰
 어다니며 빨리 돌 뿐 아니라 그 은행소에 다니는 집 개도 조금도 무서울 것이 없겠
 노라 하였다.

5 그래서 나는 ‘그럴 것 없이 아주 신문사 사장쯤 되었으면 원배달도 바랄 것 없
 고 그 은행소에 다니는 집 개도 상관할 바 없지 않겠느냐?’ 한즉 그는 똥그레지는
 눈알을 한참 굴리며 생각하더니 ‘딴은 그렇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경난이 없어
 거기까지는 바랄 생각도 못 하였다고 무릎을 치듯 가슴을 쳤다.

그러나 신문 사장은 이내 잊어버리고 원배달만 마음에 박혔던 듯, 하루는 바깥
 10 마당에서부터 뭐라고 떠들어 대며 들어왔다.

“이 선생님, 이 선생님 께쇼? 아, 저도 내일부터 원배달이올시다. 오늘 밤만 자
 면입쇼…….”

한다. 자세히 물어보니 성북동이 따로 한 구역이 되었는데, 자기가 맡게 되었으니
 까 내일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막 떨어거리면서 올 테니 보라고 한다. 그리고
^{원배달이 될 기대에 부풀어 있는 황수건}
 15 ‘사람이란 게 그러게 뭐든지 끝을 바라고 붙들어야 한다.’고 나에게 일러 주면서
 신이 나서 돌아갔다. ‘우라도 그가 원배달이 된 것이 좋은 친구가 큰 출세나 하는
^{황수건에 대한 호의와 긍정적 태도가 드러남.}
 것처럼 마음속으로 진실로 즐거웠다. 어서 내일 저녁에 그가 배달복을 입고 방울
 을 차고 와서 쫓러거리는 것을 보리라 하였다.’ ▶ 황수건이 원배달이 될 기대에 부풀어 ‘나’를 찾아옴.

위키 그러나 이튿날 그는 오지 않았다. 밤이 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그다
^{기대에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졌음을 암시}
 20 음 날도 신문도 그도 오지 않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야, 이날은 해도 지기 전인데
 방울 소리가 요란스럽게 우리 집으로 뛰어 들었다.

‘어디 보자!’

^{황수건이 온 것이라 생각한 ‘나’의 반가움}

하고 나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그러나 웬일일까? 정말 배달복에 방울을 차고 신
 문을 들고 들어서는 사람은 황수건이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25 “왜 전에 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오?”

물으니 그는,

“제가 성북동을 맡았습니다.”

한다.

“그럼, 전에 사람은 어디를 맡았소?”

30 하니 그는 픽 웃으며,

 이튿날 황수건이 ‘나’의 집
 에 오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예시답] 황수건이 소망하던 원배
 달부 자리는 커녕 보조 배달부 자
 리에서마저 쫓겨났기 때문이다.

경난(經難) 어려운 일을 겪음. 또
 는 그 어려움.

쫓러거리다 쫓령거리다. 매우 가
 법고 경망스럽게 자꾸 행동하다.

등장인물

황수건 (주인공)	천성이 착하고 순수 하나 사회생활에 적 응하지 못하여 세상 에서 밀려나는 인물
'나' (서술자)	황수건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관찰자

황수건이 동네에서 유명한
까닭은 무엇일까?

예시답 우스운 일화를 여럿 남길
정도로 모자란 인물이기 때문이
다.

당자(當者) 당사자. 어떤 일이나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
한 사람.

급사(給仕) 관청이나 회사,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려고 부
리는 사람.

시학관(視學官) 일제 강점기에,
학무국에 속하여 관내(管內)의 학
사 시찰을 맡아보던 고등관.

센세이~후리마쓰카 '선생님, 안
녕하세요?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
까?'라는 뜻.

“그까짓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배달부로 쓸라다가 똑똑지가 못하니까 안 쓰고
황수건에 대한 다른 이들의 생각
맡았나 봅니다.”

한다.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소?”

하니,

“그럼요, 여기가 따루 한 구역이 된걸요.”

하면서 방울을 울리며 나갔다.

이렇게 되었으니 황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길은 없어지고 말았다. 나도 가끔 문
안엔 다니지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옆은 아닌 듯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 황수건에 대한 '나'의 애정이 드러남.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만나는 섭섭함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그 당차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 보조 배달부 자리마저 잃게 된 황수건과 이를
마음 아파하는 '나'

한데 황수건은 그의 말대로 노랑 수건이라면 온 동네에서 유명은 하였다. 노랑
수건 하면 누구나 성북동에서 오래 산 사람이면 먼저 웃고 대답하는 것을 나는 차
츄 알았다.

내가 잠깐씩 며칠 보기도 그랬거니와 그에겐 우스운 일화도 한두 가지가 아
황수건의 천진하고 모자란 인물됨 때문에 벌어진 일들
니었다.

일화 ① 삼산학교에 급사로 있을 시대에 삼산학교에다 남겨 놓고 나온 일화도 여러 가
지라는데, 그중에 두어 가지를 동네 사람들의 말대로 옮겨 보면, 역시 그때부터도
이야기하기를 대단 즐겨 선생들이 교실에 들어간 새, 손님이 오면 으레 손님을 앉
히고는 자기도 걸상을 갖다 떡 마주 놓고 앉는 것은 물론, 마주 앉아서 곧 자기
류의 만담 삼매로 빠지는 것인데, 한번은 도 학무국에서 시학관이 나온 것을 이따
황수건의 성격이 드러나는 수다
위로 대접하였다. 일본말을 못 하니까 만담은 할 수 없고 마주 앉아서 자꾸 일본
말을 연습하였다.

“센세이 히, 오하요 고자이마쓰카……. 히히 아메가 후리마쓰 유키가 후리마쓰
카 히히…….”

시학관도 인정이라 처음엔 웃었다. 그러나 열 번 스무 번을 되풀이하는 데는 성
이 나고 말았다. 선생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한 선생이
나와 보니 종 칠 것도 잊어버리고 손님과 마주 앉아서 ‘오하요 유키가 후리마쓰
카…….’ 하는 판이었다.

그날 수건이는 선생들에게 단단히 물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고 했으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그에 쫓겨 나오고 만 것이다. 그는,

일화 ② “너희 색시 달아난다.”

하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 한다. 한번은 어느 선생이 장난말로,

5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엔 옛날부터 색시들이 달아나기를 좋아하는데 어제도 저 아랫말에서 돌이나 달아났다니까 오늘은 이 동네에서 꼭 달아나는 색시가 있을걸…….”

했더니 수건이는 점심을 먹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어서 바빠 하학을 시키고 집으로 갈 양으로 오십 분 만에 치는 종을 이십 분 만

10 에, 삼십 분 만에 함부로 다가가서 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 다소 모자라지만 천진하고 순수한 성격을 지닌 황수건에 얽힌 우스운 일화들
 하루는 나는 거의 그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 선생님 껍쇼?”

하고 수건이가 찾아왔다. 반가웠다.
황수건에 대한 '나'의 호감이 직접적으로 드러남.
 “선생님, 요즘 신문이 거르지 않고 잘 읍쇼?”

15 하고 그는 배달 감독이나 되어 온 듯이 묻는다.
황수건의 엉뚱한 모습을 희화화함.
 “잘 오우. 왜 그러우?”

한즉 또,
 “늦지도 않굽쇼, 일즉이 제때마다 꼬옥 읍쇼?”
 한다.

20 “당신이 돌릴 때보다 세 시간은 일찍이 오고 날마다 꼭꼭 잘 오우.”

하니 그는 머리를 벽적벽적 긁으면서,
쑥스러움과 겸연쩍음을 드러내는 비언어적 표현
 “하루라도 거르기만 해라, 신문사에 가서 대뜸 일러바치지…….”
신문사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억울함과 새 배달원에 대한 질투심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표현함.
 하고 그 빈약한 주먹을 부르든다. → 황수건의 천진하고 어수룩한 성격이 드러남.

“그런뎡쇼, 선생님?”

25 “왜 그러우?”
 “삼산학교에 말씀예요, 그 제 대신 들어온 급사가 저보다 근력이 세계 생겼습쇼?”

“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쇼.”

하니 그는 은근한 말소리로 히죽거리며,
황수건의 행동을 희화화함.
 “제가 거길 또 들어가 불라굽쇼, 운동을 합쇼.”

30 한다.



황수건과 관련된 우스운 일화

- ① 종 치는 것도 잊고 시학관에게 짤은 일본말을 반복해서 연습한 일화
- ② 황수건의 아내가 도망갈 것이라는 농담과 관련된 일화

↓

황수건의 인물됨을 부각함.

하학(下學) 학교에서 그날의 수업을 마침.
다그다 ① 시간이나 날짜를 예정보다 앞당기다. ② 어떤 일을 서두르다.
근력(筋力) 근육의 힘. 또는 그 힘의 지속성.

“어떻게 운동을 하오?”

「“그까짓 거 날마당 사무실로 갑죠. 다시 써 달라고 졸라 댁죠. 아, 그랬더니 새
」: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황수건
급사란 녀석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댁쇼, 이 녀석이 막 불근댁니다그려. 그
래 한번 삼을 해야 할 턱댁쇼, 그 녀석이 근력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 뎀벼들 턱
댁쇼, 허…….”」

5

황수건의 새로운 소원

삼산학교 복직

새 급사의 근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 삼산학교 대문에 큰 돌맹이를 가져다 놓는 엉뚱한 행동을 함.

“그렇지, 멋모르고 대들었다 매만 맞지.”

황수건의 엉뚱한 소리에 동조하고 추임새를 넣어 줌. → 황수건에 대한 '나'의 호의적인 태도
하니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또 은근한 말을 한다.

“그래섭쇼, 엇저녀엔 큰 돌맹이 하나를 굴려다 삼산학교 대문에다 놔뎁쇼. 그
리구 오늘 아침에 가 보니깐 없어졌는댁쇼, 이 녀석이 나처럼 억지루 굴려다 버
렸는지, 뻥쩍 들어다 버렸는지 그만 못 봤거든입쇼, 제길…….”

10

하고 머리를 긁는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얼 생각한 듯 손뼉을 탁 치더니,

“그런댁쇼, 제가 온 건입쇼, 댁에선 우두를 넣지 마시라구 왔습쇼.”

황수건이 '나'의 집을 방문한 목적

한다.

“우두를 왜 넣지 말란 말이오?”

한즉,

15

「“요즘 마마가 다닌다구 모두 우두들을 넣는댁쇼, 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 대전제의 오류로 인해 잘못된 결론을 도출함.
없어지는 법인댁쇼.”

하고 자기 팔을 걷어 올려 우두 자리를 보이면서,

“이걸 봅쇼. 저두 우두를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습쇼.”

한다.

20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러디까?”

물으니 그는 싱글거리며,

“아, 내가 생각해 났습쇼.”

근거 없는 말임이 드러남. 우두 접종 시 며칠 동안 약하게 천연두를 알게 되어 기운이
한다. 없어지는 현상을 두고 황수건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왜 그렇소?”

25

하고 캐니,

「“뭘…… 저 아래 윤금보라고 있는데 기운이 장산댁쇼. 아 삼산학교 그 녀석두
」: 동문서답. 황설수설하는 모습
우두만 넣었다면 그까짓 것 무서울 것 없는댁쇼, 그걸 모르겠거든입쇼…….”」

한다. 나는,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 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소.”

근거 없는 말임을 알면서도 자신을 생각하여 일부러 찾아와 말을 전해 준 황수건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고마움을 포함.

30

황수건이 '나'를 찾아온 까닭은 무엇일까?

예시답) 우두 접종을 해롭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기 위해 찾아왔다.

불근대다 흥분하여 자꾸 성을 율컹 내다.

우두(牛痘)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에서 뽑은 면역 물질.

마마(媽媽) '천연두'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하였다. 그는 좋아서 병긱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 신문 보조 배달부 자리에서 쫓겨난 뒤 오랜만에 '나'를 찾아온 황수건

황수건의 순박하고 천진난만한 성격이 드러남.

“그래 삼산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소?”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쓰카이[○] 노릇을 합쇼? 밀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5 앞에 가서 버젓이 장사를 할 터덱쇼.”

한다.

“무슨 장사?”

“아, 방학될 때까지 차미[○] 장사도 하굽쇼, 가을부터는 군밤 장사, 왜떡 장사, 습자

10 생들보다 낮게 치는덱쇼.”

황수건의 허풍스러운 성격이 드러남.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황수건에 대한 '나'의 애정과 연민이 드러나는 소재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 황수건의 천진난만하고 인간미 넘치는 성격이 드러남.

15 “선생님 잡수시라굽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나는 황수건에게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돈을 줌.

절정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씬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 사건의 요약적 제시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

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다는 것이었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

금실, 부부간의 사랑

20 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 참외 장사도 실패하고 아내마저 달아난 황수건

그러нде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나'에 대한 황수건의 고마움을 상징함.

병긱거리며,

25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쇼.”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황수건의 착한 성품이 드러남.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째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

이의 멍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황수건이 포도를 훔쳤기 때문

꼼짝 못 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

30 리고 포뎃값을 물어 주었다. 포뎃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

참고 자료 이태준 단편 소설의 의의

패배적인 인물의 창조를 통해 작가가 노린 의도는 식민 지배의 야만성과 허위성 그리고 부당성의 지적이다. 일제가 내세운 침략 논리의 허위성을 밝히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존마저 허락치 않는 일제 강점의 부당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의도는 강렬한 저항의 모습을 띠지 못하고 패배적 인물의 몰락성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무력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의 수용 태도에 따라 상당한 호소력을 지닐 수 있다는 점, 조금의 현실 비판도 허용되지 않았던 시대적 상황에서 소극적인 방식로나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 성격 창조와 문체, 짜임새 등에서 성숙한 소설 기법을 구사했다는 점 등에서 문학사적으로 뚜렷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황수건이 '나'에게 포도를 준 까닭은 무엇일까?

[예지답] '나'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고쓰카이 '소사(小使)'의 일본어. 관청이나 회사, 학교,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려고 고용한 사람.

차미 참외의 방언.

달포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직각(直覺) 보거나 듣는 즉시 곧 바로 깨달음.

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

황수건이 훔쳐 온 포도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황수건이 훔쳐 온 포도를 맛보며 ‘나’는 그의 순박한 마음씨에 연민과 애정을 느끼게 됨.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 포도를 훔쳐 ‘나’에게 가져온 황수건

결말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 빛이 길을 깎아 놓았다.

그런데 포도원계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 케…… 와 나…… 미다카 다메이…… 키…… 카…….”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삶에 지친 황수건의 모습과 그의 심리를 드러냄.’

를 부르며 큰길의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알은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훅 길 아

둔 삼 원을 감지 못한 일, 훔친 포도를 가져다 준 일

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황수건에 대한 ‘나’의 배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이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펍펍 빨면서 지나

황수건의 내면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소재

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 달을 바라보며 우수에 잠기는 황수건을 목격하는 ‘나’

🗣️ 황수건을 본 ‘나’가 몸을 감춘 까닭은 무엇일까?

예시답 황수건이 ‘나’를 보면 무안해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몸을 감추었다. **김** 명주실로 바탕을 조금 거칠게 짠 비단.

사케와~다메이키카.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의 뜻으로, 당시 유행했던 일본 가요의 한 구절.

‘달밤’의 기능

주인공 황수건이 처한 불우한 상황과 비극적인 결말을 서정적인 분위기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함.

작품의 구성

발단

‘나’는 첫 만남에서 황수건이 못난이임을 알게 된다.

전개

‘나’는 원배달원이 소원인 신문 보조 배달부 황수건의 과거를 듣게 된다.

위기

황수건은 보조 배달부 자리를 잃고 ‘나’의 도움으로 참외 장사를 시작한다.

절정

황수건은 참외 장사에 실패하고, 그의 아내마저 가출한다.

결말

‘나’는 달을 쳐다보며 우수에 잠기는 황수건을 목격한다.



내가 읽은 <달밤>

📖 작품의 내용 정리하기

⇒ ‘나’는 성북동으로 이사 와서 황수건 (이)라는 인물을 만난다.	⇨	‘나’는 황수건이 신문 원배달부 이/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듣 게 된다.
⇒ ‘나’는 보조 배달원 자리에서 해 고된 황수건에게 장사 밑천을 대 주 지만 그는 참외 장사 에 실패한다.	⇨	황수건은 ‘나’에게 줄 포도 을/를 훔쳐 찾아오지만 따라온 포 도원 주인에게 두들겨 맞는다.
⇒ ‘나’는 달밤에 황수건을 보고는 몸을 숨기고, 노래 을/를 부 르며 걸어가는 그를 바라본다.		

📖 작품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더 찾아보고 싶은 점 써 보기



📖 이태준(1904~?) 작가 동영상 📖 참고 동영상

소설가. 인물의 섬세한 내면 묘사와 치밀한 구성, 짙은 서정성으로 한국 근대 단편 소설의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 작품으로 <복덕방>, <돌다리>, <해방 전후> 등이 있다.

← 근대화로부터 소외된 세대의
공핍함과 좌절을 그린 소설

→ 해방 이후 지식인이 겪은 이념적 갈등을 다룬 소설

한 걸음 더 우스우나 얼른 잊히지 않는 것, 무슨 글이나 그런 글은 좋은 글이다.

→ 세대 간의 인식 차이를 통해 물질만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소설

- 이태준, <문장강화>

← 이태준이 문장론에 대해 쓴 책.
문장 작법의 기초, 문장 작성 요령, 문체
등 글쓰기 방법에 대해 논의함.

1

주인공의 특징 알아보기

지도 방안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의 특성을 알아보는 활동이다. 주인공 황수건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각도 존재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주어진 말과 행동을 바탕으로 하여 황수건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① <달밤> 속 황수건의 말과 행동을 바탕으로 하여 그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자.

이 선생님, 이 선생님 겹쇼? 아, 저도 내일부터 원배달이올시다. 오늘 밤만 자면입쇼.....

이걸 밥쇼. 저도 우두를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습쇼.



-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이야기함.
-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대단히 즐김.
- 새로 온 삼산학교 급사의 근력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 대문에 큰 돌맹이를 굴려다 놓음.
- 포도를 훔쳐 '나'에게 가져다줌.



[예시답]

-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
- 오지랖이 넓어서 남의 일에 참견을 잘한다.
- 대화의 소재가 풍부하다.
- 자신의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
- 착하고 순박하다.
- 지능이 낮아서 모자란 말을 자주 한다.
- 은혜에 대해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안다.
- 불임성이 좋다.

지도 방안

본문에서 성북동 사람들이 황수건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찾아 그들의 인식을 정리해 보는 활동이다. 구체적인 대사, 황수건을 대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 뒤 황수건을 지칭하는 표현이나 단어들을 정리하도록 한다.

② ①에서 살펴본 황수건을 성북동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찾아보자.

[예시답] 황수건을 반면, 모자란 사람, 놀림의 대상, 웃음거리로 생각한다.

2

서술자의 특징과 작품의 주제 탐구하기

시점(視點)

서사 갈래, 특히 소설에서 서술자가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방식이나 관점을 말한다. 서술자가 어떤 위치에서 인물과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시점이 달라지는데, 시점에 따라 서술 효과가 달라진다.

지도 방안

소설에서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가상의 존재인 서술자를 찾는 활동이다. 서술자가 이야기 속의 인물일 때 '나'로 등장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가 주인공인지 주변 인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지도 방안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인 소설이다. 서술 시점에 따라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인상과 문학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지도 방안

작품 속 구체적인 사건과 상황에서 서술자가 주인공을 대하는 태도를 찾아 정리하는 활동이다. 서술자 '나'가 황수건에게 단순한 호의 이상의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지도 방안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자가 주인공을 대하는 태도가 갖는 문학적 효과를 알아보는 활동이다. 주인공과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태도와 주관적인 판단이 작품의 주제와 직결되는 것임을 지도한다.

1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 작품의 서술자를 이해해 보자. 지문 듣기

소설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인물을 '서술자'라고 한다. 서술자는 이야기 속의 인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야기 속 서술자가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느냐, 주변 인물이 되어 사건을 관찰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건도 달리 전달될 수 있다.

(1) 이 작품의 서술자는 누구이며,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예시답 '나'. 이야기 속에서 주변 인물로 등장하여 주인공의 삶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2) (1)에서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와 같은 서술자가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예시답 서술자 '나'가 사건의 전모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주인공 황수건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독자가 황수건의 불행에 몰입되는 것을 막아 주며 황수건에 대해 더 호기심을 갖고 작품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2 작품 속에 드러난 서술자의 태도를 알아보자.

(1) 다음 장면에서 황수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정리해 보자.

<p>황수건이 원배달원이 되지 못했을 때</p>	<p>황수건이 훔쳐 온 포도를 받았을 때</p>
<p>예시답 가까운 친구가 큰 사업에서 실패한 것을 보는 것처럼 마음 아파하고, 세상의 압박함을 원망스러워 한다.</p>	<p>예시답 훔쳐 온 포도를 '은근한 순정의 열매'로 생각하고, 오래 바라보며 맛을 음미하면서 아껴 먹는다.</p>



(2) (1)을 참고하여 이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예시답 • 경쟁에서 도태된 모자란 인간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태도
• 다소 모자라지만 순박하고 친진한 인물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비판

참고 자료 서술자 '나'의 태도

똑같이 어리석고 못난 인물일지라도 서술자가 어떠한 태도와 시선으로 그 인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비판이나 풍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황수건은 독자의 호감을 살 만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삶에 대한 진지한 자세도 없고, 남다른 선의나 희생의 덕목과도 무관하다.

그러나 독자는 이야기 속의 황수건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 연민은 서술자인 '나'의 시점, 즉 황수건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시점 속에 숨겨져, 모르는 사이에 독자로 하여금 그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다.

궁민(窮民) 생활이 어렵고 궁한 백성.

지도 방안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 배경이 인물과 작품의 주제를 향상화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공간적 배경이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인물을 효과적으로 그려 내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지도 방안

인물이 겪은 갈등의 내용이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다. 당시 시대상과 주인공을 대하는 사람들의 언행을 통해 갈등의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참고 자료 '달밤'의 기능

다른 사람들에게 황수건은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수다스럽고 어리석게 비추어진다. 그러한 황수건이 '달밤'을 배경으로 한 마지막 장면에서 고독하고 쓸쓸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달밤'은 세상의 혼잡스러움을 가려 준다. 황수건이 처한 현실의 고통을 밝혀 주는 환한 달빛은 이 소설이 비극으로 종결되는 것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한다.

지도 방안

작품의 마지막 장면을 읽고 소설의 배경이 주제 의식을 구현하는 데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는지 파악하는 활동이다. 마지막 장면이 주는 분위기와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태도를 근거로 삼아 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참고 자료 <달밤>에 나타난 문제 의식

- ①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압력과 그것이 빚어내는 고통을 암시하고 있음.
- ② 참담한 현실의 묘사보다는 상황에 대응하는 인물을 통해 사회 속의 참다운 인간상을 제시함.
- ③ 소외된 인간에 대한 작가의 애정 어린 시선을 통해 인간적인 정이 사라져 가는 세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1 작품의 배경을 설명한 글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지문 듣기**

작가가 이 소설을 쓴 1930년대는 일제 강점기로, 당시 조선인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일본인이 받는 임금과 조선인이 받는 임금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실업자와 결인, 궁민의 숫자는 빠르게 늘어 갔다. 당시에는 사대문 안쪽만을 '서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소설의 배경인 '성북동'처럼 사대문 밖의 공간은 '시골'로 간주되는 변두리로, 가난한 조선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곳이었다.

(1)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인 '성북동'의 역할을 생각해 보자.

[예시답] 당시 '성북동'은 사대문 안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시골로 여겨지던 지역이다. 1930년대 가난한 조선인들이 모여 살았으며, 식민지 근대의 그늘과 변두리 인생의 고달픔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다.

(2) 황수건이 겪은 갈등을 193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예시답] 1930년대라는 시대는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황수건처럼 묘자라고 어수룩한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더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기 쉬웠을 것이다. 이 때문에 황수건은 내적 갈등을 겪고, 아픔을 느꼈을 것이다.

2 다음은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이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에 담긴 뜻과, 이러한 결말이 주는 효과를 생각해 보자.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길을 깎아 놓았다.

그런데 포도원계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말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 케…… 와 나…… 미다카 다메이…… 키…… 카…….”

를 부르며 큰길에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알은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질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뺨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이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펍펍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예시답] 달밤이라는 시·공간적 배경은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의 비극적 이야기를 낭만적인 분위기로 이끌어 소설이 지나치게 애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막아 주면서도,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준다. 또한 황수건을 향한 서술자의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며 서정적인 분위기를 더해 주고 있다.



4

서사 갈래의 특징과 문학의 본질 탐구하기

서사 갈래는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를 허구적 인물과 사건을 통해 형상화하는 문학 양식이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서 작품을 감상해 보자.

규중(閔中)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

① 고전 소설 <홍계월전>을 읽고, 이 작품과 <달밤>이 같은 갈래로 묶이는 까닭을 생각하며 서사 갈래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지문 찾기** **제재 정리**

앞부분의 줄거리

명나라 때 홍무와 부인 양씨는 뒤늦게 계월을 낳아, 남자 옷을 입혀 기른다. 장사랑의 난을 피하다가 부모와 헤어진 계월은 강물에 버려진다. 여공이 계월을 구해 평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아들 보국과 함께 곁 도사에게 수학하게 한다. 남장을 한 계월은 이름을 평국이라고 친 뒤 보국과 함께 과거에 급제하고, 서달의 난이 일어나자 대원수와 중군장으로 출전하여 공을 세운다. 그 과정에서 평국은 헤어졌던 부모를 만나게 된다. 병이 든 평국은 어의에게 진맥을 받고 난 뒤 여자임이 밝혀진다.

어의가 옆드려 아뢰었다.

“평국의 맥을 보오니 남자의 맥이 아니오니 이상한 일입니다.”

천자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평국이 여자라면 어찌 진장에 나아가 적병 십만 군을 소멸하고 왔겠는가? 평국의 얼굴이 복숭아꽃 빛이요 몸이 약하므로 혹 미심쩍은 점이 있거니와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

그러시고는 내시를 시켜 자주 문병하도록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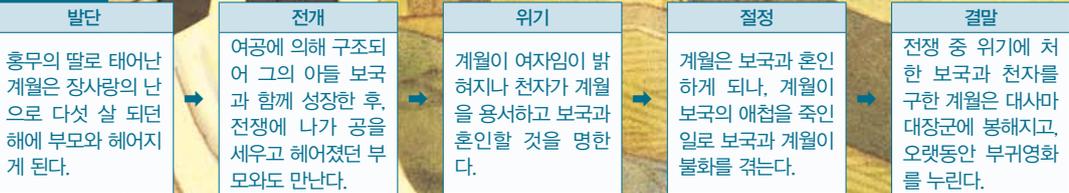
이때 평국은 병세가 차차 나아졌다. 생각하기를, ‘어의가 나의 맥을 짚었으니 나의 본색이 탄로 날 것이다. 이제 는 할 수 없이 여자 옷으로 바꿔 입고 규중에 몸을 감추어 세월을 보내는 것이 옳겠다.’

하고, 즉시 남자 옷을 벗고는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서 부모를 뵈었다. 그리고 흐느끼니 두 뺨에 두 줄기 눈물이 줄줄 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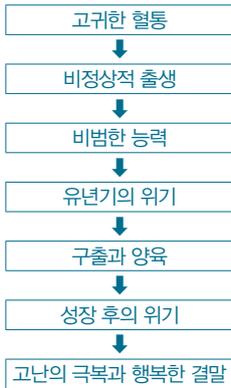
핵심 정리

갈래	고전 소설, 국문 소설, 여성 영웅 소설, 군담 소설
성격	전기적, 우연적, 영웅적, 일대기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중국 명나라
제재	계월의 수난과 극복
주제	여성 영웅의 수난과 극복,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
특징	①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이 영웅으로 등장함. ② 영웅 소설의 서사 구조를 지님. ③ 여성의 봉건적 역할을 거부하는 근대적 가치관이 담겨 있음.

작품의 구성



참고 자료 영웅 서사 구조



추구월(秋九月) 음력 9월의 가을철을 이르는 말.

황상(皇上) 현재 살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황제(皇帝)를 이르는 말.

유지(諭旨)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던 글.

인수(印綬) 벼슬에 임명될 때 임금에게 받는 도장을 몸에 차기 위한 끈.

용상(龍床) 임금이 정무를 볼 때 앉던 평상.

갈충보국(竭忠報國) 진충보국. 충성을 다해 나라의 은혜를 갚음.

지도 방안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을 비교하여 공통점을 찾고, 이를 근거로 하여 서사 갈래의 특징을 정리해 보는 활동이다. 인물, 사건, 배경을 각각 찾고,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지도 방안

①과 소단원 (1)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문학의 본질을 정리해 보는 활동이다. 학생들이 문학의 구성 요소인 내용, 형식, 표현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말이나 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에 부모도 눈물을 흘리며 위로했다. 세월이 슬픔에 잠겨 우는 모습은 **추구월** 연꽃이 가랑비를 머금은 듯, **초승달**이 구름에 잠긴 듯했으며 아름다우며 침착한 태도는 당대의 제일이었다. 세월의 우는 모습을 묘사함.

세월이 천자께 상소를 올리자, 임금께서 보셨는데 상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한림학사** 겸 **대원수 좌승상 청주후 평국**은 머리를 조아려 백 번 절하고 아뢰옵나이다. 신첩이 다섯 살이 되기 전에 장사랑의 난에 부모를 잃었사옵나이다. 그리고 도적 맹길의 환을 만나 물속의 외로운 님이 될 뻔한 것을 여공의 덕으로 살아났사옵나이다. 오직 한 가지 생각을 했으니, 곧 여자의 행실을 해서는 **규중에서** 늘 어 부모의 해골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행실을 버리고 남자의 옷을 입어 **황상을** 속이웁고 **조정에** 들었사오니 신첩의 죄는 만 번을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에 감히 아뢰어 죄를 기다리웁고 내려 주셨던 **유지(諭旨)**와 **인수(印綬)**를 올리옵나이다. 임금을 속인 죄를 물어 신첩을 속히 처참하옵소서.’

천자께서 글을 보시고 **용상(龍床)**을 치며 말씀하셨다.

세월의 가치를 알아보는 현명함을 지님.

“**평국**을 누가 여자로 보았으리요? **고금**에 없는 일이로다. 천하가 비록 넓으나 **문무(文武)**를 다 갖추어 **갈충보국(竭忠報國)**하고, 충성과 효도를 다하며 조정 밖으로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될 만한 재주를 가진 이는 **남자** 중에도 없을 것이로다. **평국**이 비록 여자지만 그 벼슬을 어찌 거두겠는가?”

당시의 봉건적 가치관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림.

-작자 미상, <홍계월전>

- 예시답**
-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가 존재한다.
 - 인물, 사건, 배경으로 구성된다.
 -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따라 문학적 효과가 달라진다.

학습 활동지

② ①에서 정리한 내용과 소단원 (1)에서 배운 ‘문학의 본질’을 생각하며 <달밤>과 <홍계월전>의 구성 요소들이 작품 전체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예시답 <달밤>은 소외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연민, <홍계월전>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아를 성취한 여성의 일생이라는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가치 있는 내용을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구성 요소,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의 설정 등 서사 갈래 고유의 방법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달밤>에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활용하여 독자들이 소외되고 모자란 인물의 삶에 연민을 느끼게 된다. <홍계월전>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당대 여성들의 억압된 불만을 대리 만족시켜 주고, 남녀평등 및 여권 신장이라는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참고 자료

평가 자료

- 소단원 평가
- 쪽지 시험
- 여휘 평가
- 서술형 평가

소단원 정리하기

지도 방안

이 소단원은 서사 갈래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이다. 소설은 '서술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학생들에게 소설 <달밤>의 서술자를 떠올리게 하면서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가 독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 서사 갈래

개념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를 허구적 인물과 사건을 통해 형상화하는 문학 양식.

하위 갈래

설화, 고전 소설, 신소설, 현대 소설 등

● 소설의 특징

- 인물, 사건, 배경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 서술자는 작품 세계를 전달하기 위해 설정된 가상의 존재이다.
-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따라 작품의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과 문학적 효과가 달라진다.

● <달밤>에서 서술자의 역할

작품

서술자 '나'



주인공 황수건

이 작품의 서술자 '나'는 작품의 안에 있고, 주인공 황수건을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 독자는 이러한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

여휘 점검하기

지도 방안

소설에서 인물의 행동이나 외양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다양한 단어들에 대해 학습하는 활동이다. 인물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한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하면 작품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도하도록 한다.

● 다음은 소설 <달밤>에서 인물의 행동이나 외양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단어들이다. 단어의 뜻을 찾아 바르게 연결해 보자.

똥그레지다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자연 그대로 깨끗하고 순진한 데가 있다.

부르대다

동그렇게 되다.

천진스럽다

남을 나무라거나 하는 듯이 거친 말로 야단스럽게 떠들어 대다.

휘적거리다

걸을 때에 두 팔을 자꾸 몹시 휘젓다.



03

개념 정리

극 갈래의 이해

지도 방안

희곡은 공연을 전제로 한 문학의 갈래로, 배우의 연기에 의해 사건이 전개된다는 특징이 있음을 설명한다.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모둠별로 시간을 주는 것도 좋다.

생활 속 다양한 질문

- 서사 갈래에서 드러나는 갈등과 극 갈래에서 드러나는 갈등은 다른 것일까?
- 소설을 영화로 만들거나 드라마로 만든 작품은 원래의 소설 작품과 어떤 공통점, 차이점이 있을까?
- 우리 조상들이 향유한 극 갈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활 생각 열기 지문 듣기

내 꿈은 배우가 되는 거야.

현실의 '나'와는 다른 '나'를 연기하는 일이라니!

늘 새로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는 점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

배우가 된다면 어떤 곳에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연극 무대도 있고, 드라마나 영화도 있어.

희곡 드라마 대본 시나리오
그렇다면 연극과 드라마, 영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뭘까?



●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등장인물의 역할을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하고, 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한다.



인물 사이에 발생한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작품의 주제를 정리한다.



시나리오를 감상하고, 극 갈래의 특징을 이해한다.

파수꾼

핵심 정리

갈래	희곡, 단막극, 풍자극
성격	우화적, 현실 풍자적, 교훈적, 상징적
배경	어느 마을의 황야에 있는 망루
제재	권력의 위선, 이리 떼의 진실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실을 향한 열망과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 무비판적인 권력 추종에 의해 잘못된 권력이 강화되는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징적인 소재와 인물을 등장시켜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② 우화적 기법을 사용하여 작가의 의도를 작품의 이면에 숨김.

이강백

나오는 사람들



해설자(촌장)



파수꾼 가



파수꾼 나(노인)



파수꾼 다(소년)

앞부분의 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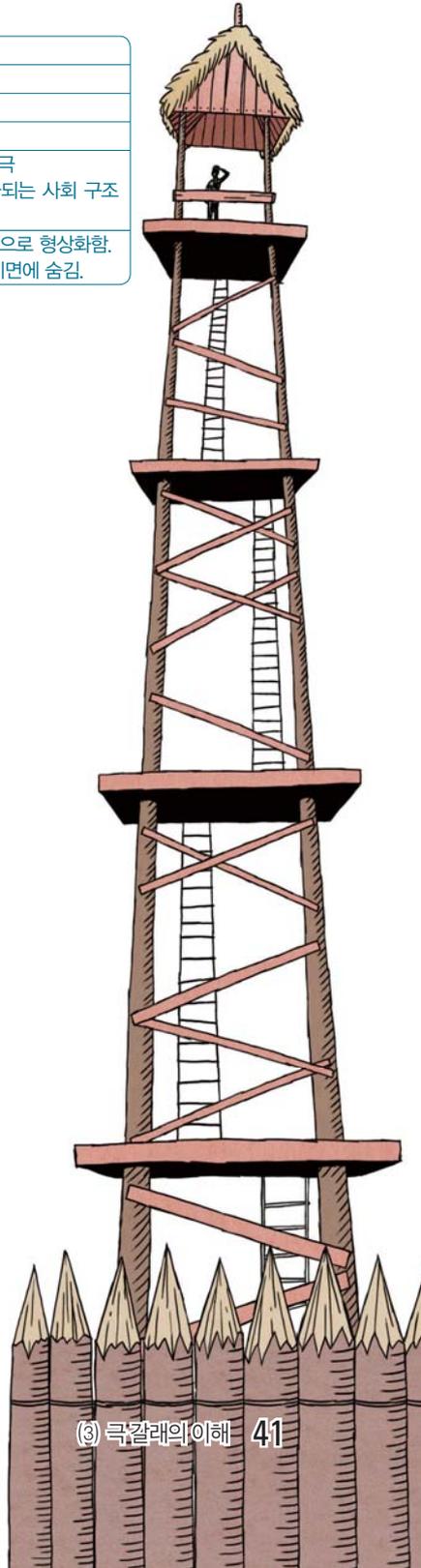
발단 새로 파수꾼이 된 소년 '다'는 망루가 세워진 황야로 온다. 파수꾼 '가'가 망루 위에서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라고 외치면 파수꾼 '나'는 망루 아래에서 북을 두드려 마을에 알린다.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의 북소리를 듣고 허둥대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한다. 어느 날 '다'는 처음부터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적은 편지를 망루로 보급품을 날라 주는 운반인에게 부탁하여 촌장에게 보낸다. 편지를 전하기 전에 내용을 읽어 본 운반인은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린다.

해설자, 퇴장. 사이.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나 아침 식사 하겠니?

다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진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

나 무얼 좀 먹어야 기운이 나는 거란다. 애, 남은 닭고기 너나 먹으렴. (음식 담



긴 접시를 다에게 가져가 턱 밑에 받쳐 든다.) 네 얼굴이 **헬썩하다**. 몹시 아프니?

다 파수꾼님…….

나 응?

다 이리는 정말 없는 거죠?

나 오호라, 넌 이리가 무서워서 병난 거구나. 요 겁쟁이, 우리 양철 북을 두드
가공의 대상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수단
리자. 그걸 힘껏 두드리고 있노라면 이리 떼가 덜 무서워질 거야.

다 양철 북을 쳐요?

나 그래. 치는 법을 가르쳐 주마.

다 조용했어요, 그건. 사실을 말씀드리죠. 오늘 새벽 눈을 뜨고 있던 건 저뿐
이었어요. 모두들 잠을 잤고요. 그 틈을 노려 이리 떼가 습격해 오면 어찌
나 하고 전 두려웠어요. 그래서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 높
감시와 통제의 수단
은 곳에서 저는 이 황야의 전부를 바라보았죠. 아무 데도 이리는 없더군요.
보이는 거라고는 저 멀리 하늘가에 **흰 구름**이었어요. 그걸 향해 망루 위
진실 → 이리 떼의 실체
의 파수꾼은 “이리 떼다!” 외쳤습니다. 세 번이나요, 세 번. 저는 망루 위에
서 그걸 제 눈으로 보았어요. **이리 떼**라곤 없어요. 흰 구름뿐이에요. 15

나 「거짓 → 공포의 대상, 권력 유지를 위해 가공된 적애야, 난 네 마음을 안다. 넌 망루 위엘 올라가고 싶었겠지? 이리가 무서웠
」: 파수꾼 '나'가 독재 권력의 지배 논리를 합리화하는 총장의 하수인이 드러남.
고. 더구나 어린 너에겐 이 쓸쓸한 곳이 맞질 않는다. 그래서 넌 헛소리를
하는 거야.

다 저는 정말 망루 위에 올라갔었어요.

나 그럴 리 없어. 넌 아까부터 제정신이 아니더라. 뒷으로 어찌 구름을 잡겠느
냐고 횡설수설할 때부터 난 걱정스러웠다. 제발, 이리 떼가 없다는 소린 하
지도 마라. 20

다 여기 낮은 곳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저 높은 곳엘 올라가면 이
리 떼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나 25 애야, 자꾸만 우기지 마라. 나는 이 황야에서 평생을 지냈단다. 넌 여기 온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고. 그런데, 사흘밖에 안 된 네가 평생을 보낸 나보
다 뭘 잘 안다고 그러니?

가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 ▶ **진실을 밝히려는 파수꾼 '다'를 무시하는 파수꾼 '나'**
파수꾼 '가' 역시 파수꾼 '나'와 마찬가지로 총장의 하수인임.

🗨 파수꾼 '다'를 나무라는 파수꾼 '나'는 어떠한 성격의 인물일까?

📖 **예시답** 잘못된 믿음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인물이다.

헬썩하다 얼굴에 핏기가 없고 파리하다.

파수꾼 나는 확신 있게 양철 북을 두드린다. 다는 어느 때와는 달리 침착하게 일어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 주는 행동

선다. 그리고 담요를 벗어 네모반듯이 갠 다음 식탁 위에 놓는다. 그는 북을 두드리는 나를 바라보면서 몹시 안타까운 표정이 된다.
이리 떼가 허상임을 알고 있으므로

가 북소리 중지! 이리 떼는 물러갔다!

다 정말 이리가 있다고 믿으세요?

5 나 보렴, 방금도 이리 떼가 오질 않았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양철 북을 치
파수꾼 '나'는 망루 위에 올라가 이리 떼를 확인한 적이 없지만 그 존재를 확인하는 우매한 모습을 보이며 평생을 보냈겠느냐? 서운하다.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
 는구나.
파수꾼 '다'의 말은 파수꾼 '나'의 평생을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

다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그 많은 나날을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보내셨어요?

나 넌 그렇게도 무섭니, 이리가?

10 다 오히려 이리가 있다고 믿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땐 숨기라도 했으
진실을 알고 난 뒤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가 갈등을 일으켜 마음이 괴로움을 역설적으로 표현함.
 니까요. 땅에 엎드리면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요, 이리가 없으니 땅
 에 엎드려야 아무 소용 없고요, 양철 북도 쓸모가 없게 됐어요. 오직 이제
 는 제가 본 그 사실만을 말하고 싶어요.
이리 떼의 실상은 흰 구름이라는 사실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
1인 2역 「: 인물의 위선적 면모를 드러내기 위한 설정

15 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촌장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나 아, 촌장님. 여긴 웬일이십니까?

촌장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러 오
 곤 했던 곳이지요. 그땐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덩이 깔려
 있고 망루 위의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난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었으니
촌장 자신도 어린 시절에는 이리 떼의 존재를 믿지 않았음을 암시
 까요.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 주는 편지
이리 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편지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함.
 를 받았습시다. 그래 이곳엘 찾아온 거예요. → 촌장의 교활함이 드러남.

나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촌장 오래 뵈지 못했더니 그동안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25 나 촌장님도요, 더 늙으셨어요.

촌장 오다 보니까 저쪽 뒷에 이리가 치어 있습니다.

나 이리요? 어느 쪽이요?
파수꾼 '다'와 단둘이 이야기하기 위한 거짓말

참고 자료 '망루'- 팬옵티콘(Panopticon)

황야에 우뚝 솟은 망루는 <파수꾼>의 핵심적인 무대 장치이다. 망루는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권력의 기제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그것이 통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허구성이 은폐되어야 하므로 망루는 마을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다. 또한 망루 위와 아래로 분할되어 망루 아래에서는 진실을 알 수 없게 소통을 차단함으로써 신비화된 권력이 형성된다.

🗨️ 왜 파수꾼 '다'는 파수꾼 '나'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을까?

[예시답] 이리 떼의 존재가 거짓임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거짓을 진실로 믿는 파수꾼 '나'와 같은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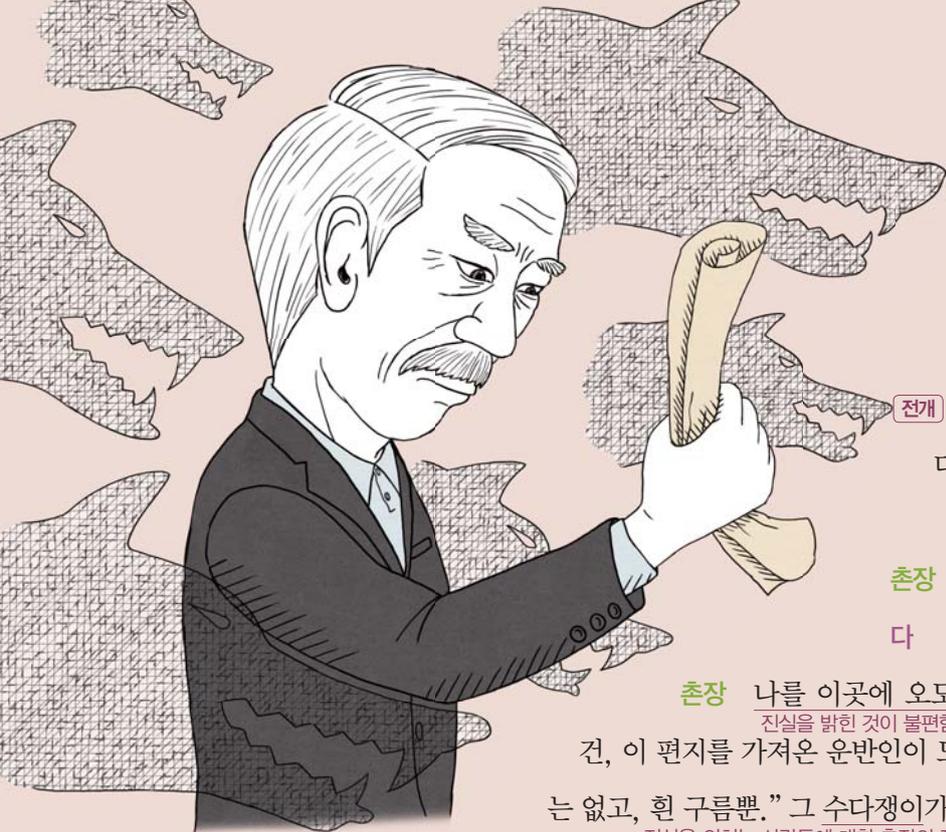
주요 소재의 의미

촌장	이리 떼	파수꾼 '다'
사회 통제 수단		실체 없는 허상
감추어야 할 진실	흰 구름	밝혀야 할 진실
사람들의 불안함을 조장하는 도구	양철 북	사람들을 기만하는 도구

🗨️ 촌장이 받은 편지에 담긴 내용은 무엇일까?

[예시답] 편지에는 망루 너머 황야에 무서운 이리 떼는 없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흰 구름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

상기(想起)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여 냄.



촌장 저쪽요, 저쪽. 짚레 덩굴 밑 이던가요…….

나 드디어 잡는군요!

▶ 촌장이 파수꾼 '다'를 만나기 위해 망루로 찾아옴.

전개 파수꾼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촌장 이것, 네가 보낸 거니?

다 네, 촌장님.

촌장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을 와 달라고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다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히려는 것을 은근한 위협을 통해 막으려 함. 도끼는 왜 들고 와요?

촌장 망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 그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라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체제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위선과 허위로 대중을 기만하는 인물

촌장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이리 떼가 허상임을 촌장 자신도 인정함.

다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난 알고 있지. ▶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음을 시인하는 촌장

절정 **다**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닳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촌장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촌장 자신만의 논리(독선적인 성격)

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체제 안정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억압하는 현실을 비판함.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도끼'의 의미 촌장이 진실을 밝히려는 파수꾼 '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끌어들이는 소재

'딸기'의 의미 진실이 은폐되고 왜곡되는 곳에서 자라는 부정한 대가. 권력자들이 독점하는 특권

불청객(不請客) 오라고 청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찾아온 손님.

참고 자료 <파수꾼>은 1974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그 당시의 상황은 1972년에 군사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한 상태였다. 유신 체제는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였지만, 그것의 권위주의적 경직성은 국민들의 정치의식과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유신 체제는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서 역기능적 현상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결과 국내외로부터 격렬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양심적 지식인, 학생, 종교인 등이 이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촌장 「애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
 「: 촌장의 합리화. 이리 떼에 대한 경계심이 마을 사람들 사이의 단결과 질서를 유지하는 원동력이라 주장함.
 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
 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덧들을 보살피고 양철 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
 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
 「: 파수꾼 '다'가 진실만을 고집한다면 마을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 협박함.
 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
 져 버린다. 애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다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 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촌장 뭐라고?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킨 후에 웃으며)「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 떼?
 그게 뭐냐? 있지도 않은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 놓고, 마을엔 가서 울타
 리를 둘렀다. 망루도 세웠고, 양철 북도 두들기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 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
 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다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망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촌장 그래, 외치마.
다 아, 이젠 됐어요!

촌장 (혼잣말처럼) 「그러나 잘될까? 흰 구름, 허공
 에 뜬 그것만 가지고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 떼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다 뭘 망설이시죠?

촌장 아냐,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온화한 얼굴에서 혀가 날름
 나왔다가 들어간다.) 지금 사람들은 도끼

☞ 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근거는 무엇일까?
 [예시답] 마을의 질서 유지와 사람들
 들의 고귀한 희생

촌장의 이중성

표면적	이면적
이해심 많은 태도, 침착하고 정중함.	권력을 유지하려는 위선적인 태도, 진실을 왜곡함.

☞ '이리 떼'와 '흰 구름'은 무엇
 을 상징할까?
 [예시답]
 • 이리 떼: 거짓, 공포의 대상, 권
 력 유지를 위해 가공된 적, 마
 을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
 든 허상
 • 흰 구름: 진실, 평화, 아름다움

허사(虛事) 헛일. 보람을 얻지 못
 하고 쓸데없이 한 노력.



까지 들고 온다잖니? 망루를 부순 다음엔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진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진실이 가져다 줄 비극

다 살인이라고요?

총장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생각해 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 5
파수꾼 '다'를 회유하기 위해 끔찍한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의 불안감과 동정심을 자극함.
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애,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다 아니에요, 그건! ▶ 진실을 숨기기 위해 파수꾼 '다'를 회유하는 총장

총장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지?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10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리 떼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 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다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10

총장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 구름이라 외칠 거고, 사람들 15
 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나는……. (은밀한 목소리로) 애, 내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파수꾼 '다'를 굴복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긴 말

다 아뇨,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총장 그것 봐. 넌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 구름을 믿지 15
 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 진실을 믿지 못한다고 몰아세움으로써 파수꾼 '다'의 실천 의지를 꺾으려 함.
 넌 내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다 (창백해지며) 그건, 그건 아니에요!

총장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으며) 20
총장의 위선적인 행동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테니.

파수꾼 '다'를 회유하기 위한 총장의 거짓 타협안. 상대방을 서서히 굴복시키는 용의주도함을 보임.

다 꼭 약속하시는 거죠?

총장의 계략에 속아 넘어감.

총장 물론 약속하지.

다 정말이죠, 정말?

총장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 총장에게 서서히 설득당해 가는 파수꾼 '다'

하강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25

나 또, 헛치었습니다. 이리는 워낙 교활해서요, 친 것 같아도 가 보면 달아나고 없어요.

총장 다음에는 꼭 잡히겠지요.
헛된 희망을 심어 주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습

등장인물의 상징성

작품이 창작된 시대(1970년대)는 체제 안정을 명분으로 진실을 말하는 언론 및 단체들을 탄압하며 진실을 감추던 때였다. 이 작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등장인물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총장	체제 유지를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권력자
파수꾼 '다'	진실을 알고 폭로하려 하지만 잘못된 권력의 논리에 설득당하고 마는 나약한 지식인
파수꾼 '나'	권력자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추종자

🗣️ 파수꾼 '다'가 괴로워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예시답) 지금 당장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다라면 그 껍질을 촌장님께 선사하고 싶었는데…….

촌장에게 기부함.

촌장 받은 거나 다름없이 감사합니다.

나 (촌장에게 안겨 있는 다를 가리키며) 그 앤 지금 몹시 아픕니다.

촌장 네. 열이 있는 것 같군요.

5 다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서 병이 났어요.

촌장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앓는 병이겠지요.

권력과 통치 질서에 대한 비판, 진실을 향한 열망

나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 줘야 하는 건데. (다에게) 애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것 빨리 좀 나아 주렴.

다 (힘없이 웃으며) …… 고마워요.

10 나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촌장 마을 사람들이죠.

나 마을 사람들요?

촌장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빙긋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

= 촌장 = 해설자

15 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 떼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 봅시다.

파수꾼 '다'도 거짓말에 동참하도록 함.

관객의 참여

관객들이 '마을 사람들'이 되어 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효과
- 등장인물 수의 제약을 극복함.
 -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여 흥미를 유발함.
 - 관객 스스로가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됨.

파수꾼 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망루를 향해 걸어간다.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 진실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인한 괴로움 간다.

☞ 망루를 향해 걸어가는 파수꾼 '다'의 심정은 어떠한까?

(예시답)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되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울 것이고, 거짓을 말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움을 느낄 것이다.

나 애야, 괜찮겠니?

20 다 …… 네.

나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 떠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이인데. 망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기회에 말이다, 넌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 알았지, 응?

진정한 의미의 파수꾼이 아닌, '권력의 하수인'으로서의 파수꾼

25 촌장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촌장의 권력이 유지되는 이유

- 권력자의 욕망, 교활함, 위협
- 대중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가공의 적을 만듦.
- 권력자에게 속거나 맹목적으로 권력자를 지지하는 세력 존재

↓
권력의 유지 및 강화

파수꾼 다는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마침내 부르짖는다.

파수꾼 '다'의 내적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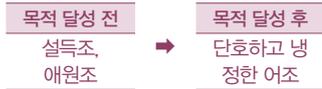
다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
촌장의 회유로 인해 권력에 굴복하고 그의 하수인으로 전락함.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 북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마을의 불안감을 증폭시킴.

가 북소리 중지! 이리 떼는 몰려갔다!

촌장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 떼뿐
 5
 입니다. 이 망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겠지요, 양철 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
파수꾼 '다'와 약속했던 것과는 다른 선언(촌장의 이중적 모습)
 니다. 여러분, 다음 이리의 습격 때까지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돌아가십시오. 가시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
 다.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리
진실을 전파한 무고한 사람
 떼가 여러분을 물어뜯으러 옵니다. 10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감 조성 ▶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이리 떼의 습격을 알리는 파수꾼 '다'

촌장의 어조 변화



대단원 망루 위에서 파수꾼 다가 내려온다.

작품의 두 가지 아이러니

- ① 들판 너머에는 흰 구름만 있을 뿐인데도 허구의 이리 떼에 대한 공포 속에서 마을의 평화가 유지된다는 아이러니
- ② 진실을 밝히려는 파수꾼 '다'가 촌장의 교묘한 말에 설득당하여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는 데 동조하게 되는 아이러니

💡 촌장이 파수꾼 '다'를 대하는 태도가 왜 갑자기 달라졌을까?

예시답 촌장의 의도대로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히는 대신 거짓을 말했으므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는 어떤 분위기를 형성할까?

예시답 외부의 폭력적인 분위기와 내면의 혼란스러운 심리를 암시한다.
한가지다 한가하고 조용하다.

나 난 네가 이렇게 용감해질 줄은 몰랐구나.

촌장 고맙다. 정말 잘해 주었다.

나 아냐, 난 몰랐던 건 아니었어. 넌 나에게 용감한 사람이 되라고 약속하질 않았니? 난 그때 이미 알아본 거야, 넌 꼭 훌륭한 파수꾼이 될 거라고. 15

촌장 애, 나 좀 보자. (한갓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너한테는 안됐지만, 넌 이곳에
단호하고 냉정한 태도로 변화함. 파수꾼 '다'에 대한 보복
 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

다 네?
자신도 진실을 은폐하는 데에 동조하였으므로 당당하지 못함.

촌장 마을엔 오지 마라.

다 (침묵) 20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

음향 효과를 통해 진실이 왜곡된 사회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타내며, 파수꾼 '다'의 암울한 정서를 드러냄.

촌장 「난 저 사람들이 싫어.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 따기에 가 있다. 넌 내 추억
 「: 인간의 근원적인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하기 위한 말이자 권력자가 대중들을 현혹하기 위해 하는 말
 이야.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던 것이 있다.」

사이.

촌장 …… 하지만, 여긴 너무 쓸쓸해.

사이.

촌장 그림, 잘 있거라.

5 **나** 가시려고요, 촌장님?

촌장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나 제가 저만큼 바래다 드리지요. 뎃도 좀 살펴볼 겸 해서요. (함께 걸어가며)

그런데 말입니다, 양철 북을 치던 내 모습이 멋있지 않던가요?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외부의 평가에만 신경을 쓰는 어리석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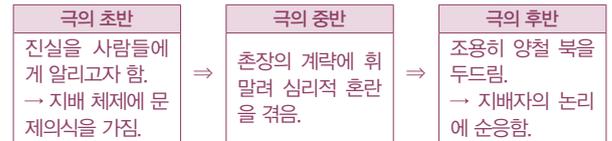
촌장과 파수꾼 나, 퇴장한다. 바람 소리만이 더욱 거칠어진다. 잠시 후, 망루 위의

10 파수꾼이 “이리 떼다!” 외친다. 파수꾼 다는 조용히 양철 북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체제에 순응하여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식인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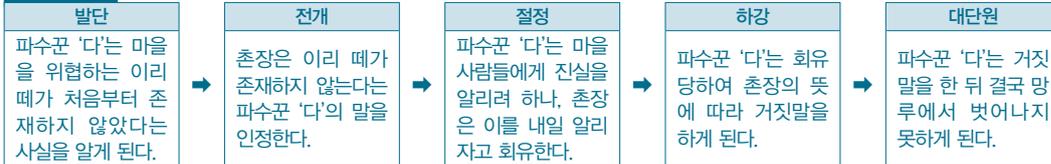
▶ 파수꾼 '다'에 대한 촌장의 보복

파수꾼 '다'의 심리 변화



- 막 -

작품의 구성





내가 읽은 <파수꾼>

📖 작품의 내용 정리하기

앞부분 줄거리 파수꾼 '다'가 이리 떼는 존재하지 않고 흰 구름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촌장에게 진실을 알리는 편지를 쓴다.



촌장이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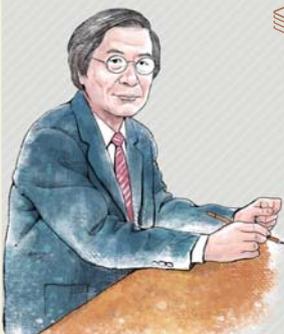


촌장은 마을의 단결과 질서 유지를 이유로 들면서 파수꾼 '다'를 **회유** 한다.



파수꾼 '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 을/를 외치고, 망루에 격리된 삶을 살게 된다.

📖 작품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더 찾아보고 싶은 점 써 보기



📖 이강백(1947~) **작가 동영상**

극작가. 197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하였으며, 우화와 비유를 활용한 현실 비판적인 작품을 주로 썼다. 주요 작품으로 <결혼>, <봄날>, <황색여관> 등이 있다.

→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갈등의 모습을 탐구한 희곡

→ 아버지와 자식들 간의 갈등과 화해를 그린 희곡

→ 소유의 본질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룬 희곡

한걸음 더 “극작가는 ‘그 사람’에 집중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집중해서 무엇을 건져 내야 해요. 다른 모두가 그 사람에게서 뭘 느끼는가를 건져 내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어야죠. 연극은 무대 위에서 완성됩니다.” (이강백 인터뷰 중에서)

- <뉴스1> 2015년 3월 31일 자 기사

1

인물의 태도와 성격 이해하기

지도 방안

이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진실'의 내용을 정리해 보는 활동이다. 앞부분 줄거리와 인물들의 대화 내용을 통해 진실의 내용을 파악하게 하고, 진실은 궁극적으로 촌장과 파수꾼 '다' 사이의 갈등을 촉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지도 방안

진실을 대하는 인물들의 태도를 통해 인물의 속성과 한계점을 정리해 보는 활동이다. 모든 등장인물들이 현실의 부조리함을 강화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지도 방안

촌장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촌장의 성격을 파악해 보는 활동이다. 질문의 내용이 드러나 있는 부분을 본문에서 찾고, 전후에 드러나 있는 다른 인물과의 대화나 인물의 언행을 바탕으로 답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 <파수꾼>에서 '진실'을 대하는 인물들의 태도를 알아보자.

(1) 파수꾼 '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진실'의 내용은 무엇인지 써 보자.

[예시답] 파수꾼 '다'는 망루 너머의 황야에 이리 떴는 존재하지 않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흰 구름만 있을 뿐이라는 진실을 알게 되어 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2) '진실'을 대하는 인물들의 태도를 각각 정리해 보자.

진실을 은폐하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하여 마을 전체를 통제하려고 한다.

촌장

[예시답] 거짓을 진실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다.

파수꾼 '나'

[예시답] 진실을 밝히려 하지만 끝내 촌장의 위협과 회유에 굴복하여 거짓의 편에 서게 된다.

파수꾼 '다'

2 다음 질문에 답해 보면서 촌장의 성격을 파악해 보자.

질문 1 진실을 숨긴 까닭을 묻는 파수꾼 '다'에게 촌장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는가?
→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질문 2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히는 것을 막기 위해 촌장은 어떤 태도로 말하고 있는가?
→ **[예시답]** 동정심과 공포감을 유발하면서도 상대방을 회유하는 태도로 말하고 있다.

질문 3 촌장이 진실을 알려 주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 **[예시답]**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다.

촌장의 성격

[예시답] 교활하다, 독선적이다, 위선적이다

2

인물 간의 갈등 파악하기

지도 방안

촌장과 파수꾼 '다'의 가치관 차이를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다음에 제시된 등장인물의 대사에서 핵심 단어를 찾고, 이러한 대사가 나오게 된 상황을 파악하여 답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1 촌장과 파수꾼 '다'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늑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촌장

거짓을 내세워 유지하는 질서

“이리 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 데 그게 더 좋아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 주려는 겁니다.



파수꾼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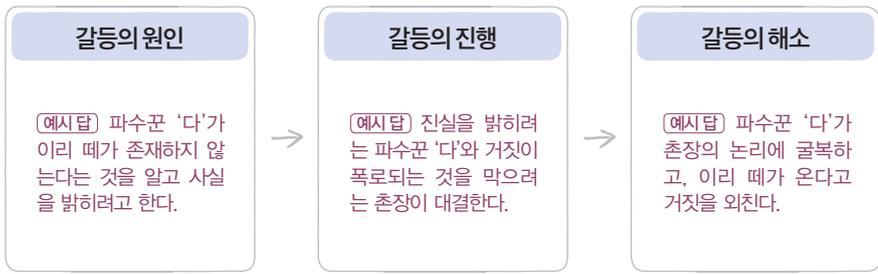
예시답 진실을 밝혀 찾게 되는 평화와 아름다움

2 이 작품에 나타난 인물 간의 갈등을 알아보자.

(1) 촌장과 파수꾼 '다' 사이에 일어난 갈등의 양상을 정리해 보자.

지도 방안

대립하고 있는 두 인물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원인, 진행, 해소의 순서로 정리해 보는 활동이다. 이때 갈등의 해소는 촌장의 논리에 파수꾼 '다'가 굴복하는 것, 즉 부정적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지도 방안

앞에서 정리한 갈등의 양상을 통해 작가가 독자,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는 활동이다. 갈등의 주체인 인물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온 대중(마을 사람들)의 문제점 또한 지적할 수 있도록 한다.

(2) (1)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의 주제를 말해 보자.

- 예시답**
- 위협과 기만으로 유지되는 권력 풍자
 - 진실을 향한 열망과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
 - 무비판적인 권력 추종에 의해 잘못된 권력이 강화되는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

극 갈래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과 갈등을 직접 보여 주는 문학 양식이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서 작품을 감상해 보자.

핵심 정리

갈래	시나리오
성격	현실 비판적, 교훈적
제재	음악 감독과 뮤지컬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의 우정
주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에 대한 비판
특징	① 세상의 편견에 맞서 끝까지 도전하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줌. ②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냄.

1 시나리오 <마이 리틀 히어로>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자문 듣기 제재 정리

앞부분의 줄거리

음악 감독 '유일한'은 규모가 작은 뮤지컬을 전전하던 중 우연한 기회로 뮤지컬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고, 다문화 가정의 소년 '영광'과 팀을 이루게 된다. 노래 실력이 뛰어난 영광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된다. 그러나 제작자는 영광이 주인공이 될 것을 꺼려하여, 일한의 거짓 학력을 빌미로 삼아 그에게 결승전을 포기하라고 강요한다.

#112대기실

일한 저 결승전 포기하겠습니다.

조용히 얘기하는 일한.

일한 저는 자격이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이 방송에 학력을 위조했습니다. 맨해튼이라는 학교는 가 본 적도 없고, 또 라스 폰 트라얀 선생은 제 스승도 아니고 그냥 제가 존경하는 작곡가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 아닙니다. (잠시 침묵) 다 변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다 가짜입니다. 하지만 영광이는 아니에요. 그 아이가 무대 위에 못 올라갈 이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영광이만이라도 실력을 인정받게 하려고 함. 가 없지 않습니까?」

일한을 돌려세우는 구 상무.

구 상무 야, 유일한!

일한 「누구보다 노력했고, 누구보다 재능도 많고, 지금 시청자들도 저 아이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요? 재도 크면 나라 지키러 군대 갈 거고요. 세금도 꼬박꼬박 낼 거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조선의 왕도 하게 해야죠.」

구 상무 (쏘아붙이며) 너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일한 네, 근데 저 아이는요…….

구 상무 (일한의 말을 끊으며) 영광이? 절대 못 올라가지.

일한 (단호한 표정으로) 그럼 제가 기자들 있는 데 가서 김영광 결승전 못 올라가게 하려고 제이엠(JM)에서 돈 주고 협박하고 매수한 거 다 얘기해도 되는 거죠?

돈 봉투를 꺼내 바닥에 던지는 일한.
물질적인 것의 유혹을 뿌리침.

일한 저는 매장시키세요. 영광이는 올라갑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영광이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 안호경 각본, 김성훈 연출, <마이 리틀 히어로>



지도 방안

두 인물 사이에 발생한 갈등의 내용을 정리해 보는 활동이다. 극 갈래에서 갈등은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드러나므로, 그들이 주고받는 대사와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갈등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1) 제시된 부분에 드러나는 인물 사이의 갈등을 정리해 보자.

갈등하는 인물	예시답 일한과 구 상무
갈등의 내용	예시답 다문화 가정 출신의 소년이 우승하여 뮤지컬 주인공으로 캐스팅될 것을 꺼려 소년의 오디션 참가를 저지하려는 뮤지컬 제작자 구 상무와 소년을 참가시키려는 음악 감독 일한 사이의 갈등

지도 방안

극 갈래의 특성을 생각해 보는 활동으로, 희곡과 시나리오의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1)의 활동을 통해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됨을 이해하고, 서술 방식과 본문의 구성 요소 등 형식상 특징은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이 작품과 <파수꾼>은 극 갈래로 묶인다. 두 작품을 같은 갈래로 묶는 까닭을 생각해 보자.

- 예시답**
- 배우들의 연기에 의한 공연(무대 상연,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한다.
 - 갈등을 다루고 있다.
 - 서술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 대사와 지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현재 시제로 서술되어 있다.

연극과 영화의 차이점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고, 시나리오의 영화의 대본이다. 연극은 관객 앞에서 직접 연기를 보여 주어야 하는 현장성이 특징이다. 하지만 영화는 사전에 제작한 영상물을 화면으로 관객에게 보여 준다.

지도 방안

희곡을 영화화했을 때 희곡의 제약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영화는 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창의·융합 학습 활동지

2 다음은 <파수꾼>의 일부이다. 이 장면을 영화화한다면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 보자.

나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촌장 마을 사람들이죠.

나 마을 사람들이요?

촌장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빙긋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 떼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 봅시다.

예시답 희곡 <파수꾼>에서 '마을 사람들'은 관객으로 대체하여 등장했지만, 영화화한다면 많은 엑스트라 배우를 동원하여 '마을 사람들'이 실제로 등장하는 장면으로 바뀔 것이다. 또한 희곡에서는 촌장과 운반인을 동일한 배우가 연기했지만, 영화화한다면 촌장과 운반인을 각각 다른 배우가 연기하거나 촬영 및 편집 기술을 활용하여 동일한 배우 두 명이 나란히 같은 장면에 잡히게 연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평가 자료

- 소단원 평가
- 쪽지 시험
- 여휘 평가
- 서술형 평가

소단원 정리하기

지도 방안

이 소단원은 극 갈래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이다. 희곡 <파수꾼>에서 촌장과 파수꾼 '다' 사이의 갈등을 통해 1970년대 폭압적인 정치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지도하도록 한다.

● 극 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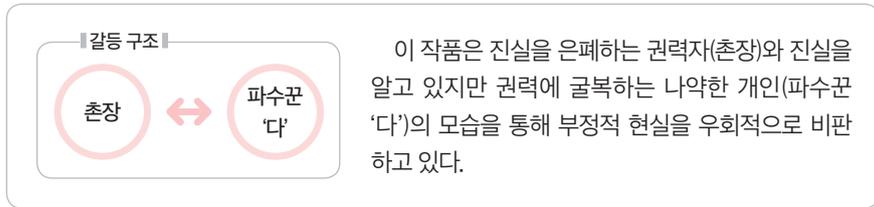
개념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과 갈등을 직접 보여 주는 문학 양식.

하위 갈래 가면극, 인형극, 창극, 희곡,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 등

● 희곡의 특징

-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연극을 공연하기 위한 대본이다.
- 서술자의 개입 없이 인물 사이의 갈등, 세계와의 대립 등을 보여 준다.
- 해설, 지시문, 대사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 대사와 행동을 현재형으로 보여 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 <파수꾼>의 갈등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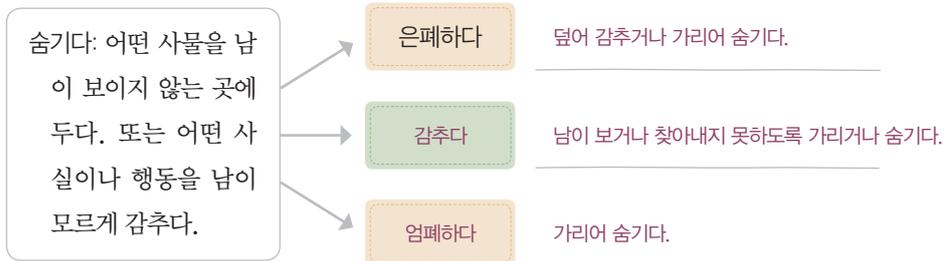


여휘

지도 방안 점검하기

등장인물의 속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단어를 학습하고 이와 유사한 뜻을 지니는 단어들을 찾아 정리해 보는 활동이다. 유사한 의미임에도 쓰임새에 차이가 있는 단어들을 특별히 주의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숨기다'는 희곡 <파수꾼>에서 촌장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단어이다. 이와 유사한 뜻을 지닌 단어들을 생각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 함께 적어 보자.



04

▶ **한** 개념 정리

교수 갈래의 이해

지도 방안

교수 갈래는 특별한 형식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문학 형식임을 설명한다. 글쓰기가 직접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자유롭게 서술하기 때문에 글쓴이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난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지도한다.

생활 속 다양한 질문

- 내가 평소에 쓰는 글들을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 나의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소개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글의 종류는 무엇일까?
- 글 속에 나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생활 생각 열기 지문 듣기

내가 평소에 쓰는 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얼마 전 가족 여행을 다녀온 뒤에 쓴 **기행문!** → **교수의 하위 갈래**

어제 오랜만에 영화관에 다녀와서 쓴 **일기도** 있고…….

멀리 전학 간 친구에게 쓴 **편지도** 포함되겠지?

이런 글들은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 좋아.

음, 그런데 친구들은 내 글을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곤 해.

“정말 너다운 글이다.”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기 때문
내 글이 나답다니, 그건 무슨 뜻일까?



●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글쓴이의 독특한 발상과 개성 있는 표현을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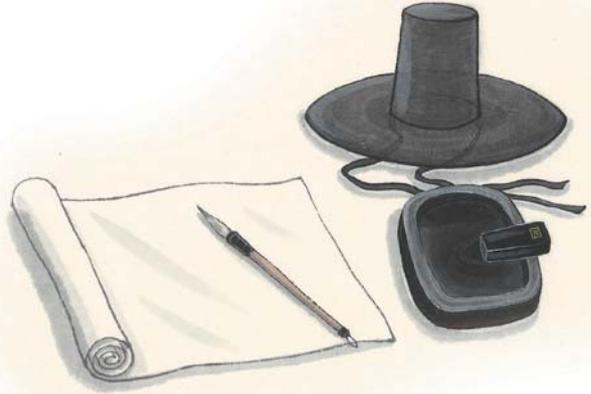


글쓴이의 가치관을 파악하고 작품에 담긴 주제 의식을 이해한다.



고전 수필과 현대 수필을 감상하고, 교수 갈래의 특징을 정리한다.

통곡할 만한 자리



박지원

핵심 정리

갈래	고전 수필, 한문 수필, 기행 수필
성격	비유적, 교훈적, 사색적, 체험적
제재	광활한 요동 벌판
주제	광활한 요동 벌판을 보며 느끼는 감회
특징	① 일반적인 통념을 깨뜨리는 작가의 참신한 발상이 돋보임. ② 문답에 의한 구성 방식을 통해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함. ③ 적절한 비유와 구체적인 예시로 대상을 실감나게 표현함.

기 7월 초8일 갑신일
1780년(정조 4년) 7월 8일

맑다.

정사와 한 가마를 타고 삼류하(三流河)를 건너 냉정(冷井)에서 조반을 먹었다.
기행문의 요소 중 하나인 '여정'이 드러남.

십여 리를 가다가 산기슭 하나를 돌아 나가니 태복(泰卜)이란 놈이 갑자기 국궁(鞠躬)을 하고는 말 머리로 쫓아와서 땅에 엎드리고 큰 소리로,

“백탑(白塔)이 현신하였기에, 이에 아뢰나이다.”

백탑이 곧 보인다는 의미로, 백탑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음.(주객이 전도된 표현) → 여행으로 인해 들뜨고 흥겨워하는 태복의 심정이 드러남.

▶ 태복이 요동의 백탑이 곧 보일 것임을 알림.

산기슭이 가로막고 있어 백탑이 보이지 않기에 말을 급히 몰아 수십 보를 채 못

가서 겨우 산기슭을 벗어났는데, 안광이 어질어질하더니 홀연히 검고 동그란 물

10 체가 오르락내리락한다.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이란 본래 의지하고 붙일 곳 없이
요동 벌판을 보며 인간이 미미한 존재임을 새삼 깨달음.

단지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이리저리 나다니는 존재라는 것을.

말을 세우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로구나.”

▶ 요동의 광활한 벌판을 본 소감

요동 벌판에 대한 벅찬 느낌을 표현함. → 글쓴이의 창의적 발상이 드러남.
했더니 정 진사가,

송 15 ▶ “천지간에 이렇게 시야가 툭 터진 곳을 만나서는 별안간 통곡할 것을 생각하시

정 진사의 물음 정관을 보면 우는 것이 아니라, 감탄하기 마련이라는 상식에서 비롯된 물음
니, 무슨 까닭입니까?” → 정 진사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생각

▶ 정 진사가 요동 벌판을 보고 통곡하기 좋은 곳이라고 말한 까닭을 물음.

[예시답] 이 표현은 이제 곧 백탑을 볼 수 있다는 뜻으로, 여행 중에 느낀 들뜨고 흥겨운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 태복은 왜 '백탑이 현신하였기에'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갑신일(甲申日) 1780년(정조 4년) 7월 8일.

정사(正使) 사신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또는 그런 지위. 박지원의 팔촌 형인 박명원을 가리킴.

조반(早飯) 아침밥.

국궁(鞠躬) 뒷사람 앞에서 존경하는 뜻으로 몸을 굽힘.

백탑(白塔) 중국 요나라와 금나라의 전탑(磚塔)을 이르는 말.

현신(現身)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보임.

마두(馬頭) 역마(驛馬)에 관한 일을 알아보던 사람.

안광(眼光) 눈의 정기.

하고 묻기에 나는,

→ “그렇긴 하나, 글썄. 천고의 영웅들이 잘 울고, 미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상식적으로 울은 말이다.
하나, 기껏 소리 없는 눈물이 두어 줄기 옷깃에 굴러떨어진 정도에 불과하였
지, 그 울음소리가 천지 사이에 울려 퍼지고 가득 차서 마치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다는 얘기는 들어 보지 못했네.

5

🗨️ 인간의 ‘칠정(七情)’에는 어
떠한 것이 있을까?

예시답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
움, 사랑, 미움, 욕심

사람들은 단지 인간의 칠정(七情) 중에서 오로지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
울음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고 알고 있지,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르고 있네. 기쁨이 극에 달
울음에 대한 상식을 뒤집는 글쓴이의 창의적 생각
하면 울음이 날 만하고, 분노가 극에 치밀면 울음이 날 만하며, 즐거움이 극에
이르면 울음이 날 만하고, 사랑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며, 미움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고, 욕심이 극에 달해도 울음이 날 만한 걸세. 막히고 억
감정을 정화하는 울음의 기능
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 버리는 데에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
이 없네.

10

통곡 소리는 천지간에 우레와 같아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 나오고, 터져 나온
적절하여 실제에 꼭 들어맞다.
소리는 사리에 절실할 것이니 웃음소리와 뭐가 다르겠는가?「사람들이 태어나
울음과 웃음의 공통점
서 사정이나 형편이 이런 지극한 경우를 겪어 보지 못하고 칠정을 교묘하게 배
「: 울음이 슬픔에서만 비롯된다는 편견이 생긴 이유
치하여 슬픔에서 울음이 나온다고 짝을 맞추어 놓았다네.」 그리하여 초상이 나
서야 비로소 억지로 ‘아이고’ 하는 등의 소리를 질러 대지.
억지 울음

15

사리(事理) 일의 이치.

대상에 대한 관점의 차이



「그러나 정말 칠정에서 느껴서 나오는 지극하고 진실한 통곡 소리는 천지 사
 『: 한나라 가의의 사례를 들어 진정한 울음은 지극한 상황을 겪어야 나올 수 있음을 밝힘.
 이에 억누르고 참고 억제하여 감히 아무 장소에서나 터져 나오지 못하는 법이
 네. 한나라 때 가의(賈誼)는 적당한 통곡의 자리를 얻지 못해 울음을 참다가 견
한나라의 미양궁. 여기서서는 한나라 정권을 비유함.
 더 내지 못하고 갑자기 한나라 궁실인 선실(宣室)을 향해 한바탕 길게 울부짖었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여 상소문을 올리고 통곡한 일
 으니, 어찌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사람은 칠정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된다고 답함.

하니 정 진사는,

전 → “지금 여기 울기 좋은 장소가 저토록 넓으니, 나 또한 그대를 좇아 한바탕 울어
 정 진사의 물음 야 마땅하겠는데, 칠정 가운데 어느 정에 감동받아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에 나는,

▶ 정 진사가 칠정 중 어느 정에 의해 울어야 하는지 물음.

10 → “그건 갓난아이에게 물어보시게.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나 칠정 중 어느 정에
 나의 답변 감동하여 우는지? 갓난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해와 달을 보고, 그다음에 부모
갓난아이의 울음은 희(喜), 락(樂)과 관련이 있다고 여김. → 창의적 사고
 와 앞에 꼭 찬 친척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늙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없을 터이니, 슬퍼하거나 화를 낼 이

☞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는 까닭은 무엇일까?

예시답) 해와 달과 부모와 친척들 을 보고 즐겁고 기쁘기 때문이다.

가의(賈誼) 전한(前漢)의 정치가 이며 문인. 당시의 정세를 분석하여 통곡할 일과 눈물지를 일, 한숨 실 일 등을 조목조목 따져서 올린 상소문이 전함.



비유적 표현의 의미

갓난아이 (보조 관념)	글쓴이 (원관념)	의미
어미 태에서 나옴.	좁은 조선에서 나와 광활한 별판을 봄.	폐쇄적인 곳에서 넓은 세상으로 나와 새로운 문물을 접함.
한없이 울어 댐.	통곡할 만함.	새로운 것을 접한 기쁨이 극에 달해 통곡할 만함.

참고 자료 한나라 가의에 관한 고사

가의(賈誼)는 전한(前漢)의 정치가이자 문인으로, 직간(直諫)을 하다가 귀양을 가게 되었으나 나라를 걱정하여 상소문을 올린 바 있다. 그 상소문에 천하사세(天下事勢)를 위해 통곡할 만한 것이 한 가지, 눈물을 흘릴 만한 것이 두 가지, 크게 탄식할 만한 것이 여섯 가지라 하여 내용을 조목조목 서술했다. 이 고사에 연유하여 가의가 자신의 울음터를 얻지 못하다가 상소문으로써 한나라 정권을 향해 울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개성

독특한 형식	물음과 대답의 방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함.
새로운 발상	드넓은 요동 벌판을 보고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함.
참신한 비유	요동 벌판을 보고 느낀 기쁨을 갓난아이가 넓은 세상에 나와 기뻐 우는 것에 비유하면서 통곡의 의미를 설명함.

요동 벌판 외에 글쓴이가 한 바탕 울 장소로 언급한 곳은 어디일까?

예시답 금강산 비로봉, 황해도 장연의 금모래 사장

'어머니 태중'의 의미

- 비좁고 폐쇄된 곳 → 조선
-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조선 지식인 사회의 폐쇄성
- '넓은 곳', 다시 말해 청나라와 대비되는 공간

태중(胎中) 아이를 배고 있는 동안.
주부(主簿) 조선 시대에, 각 아문의 문서와 부적(符籍)을 주관하던 종육품 벼슬.

겸인(僉人) 청지기. 양반집에서 잡일을 맡아보거나 시중을 들던 사말.

치가 없을 것이고 응당 즐거워하고 웃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도리어 한 없이 울어 대고 분노와 한이 가슴에 ^{설의법} 짙어 행동을 한단 말이야. 「이를 두고, 신성하게 태어나거나 어리석고 평범하게 태어나거나 간에 사람은 모두 죽게 되」: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는 이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견해
어 있고, 살아서는 허물과 걱정 근심을 백방으로 겪게 되므로, 갓난아이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먼저 울어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갓난아이의 본마음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네.

^{갓난아이가 우는 것이 슬픔 때문이 아님을 의미}
「갓난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감감하고 막히고 좁은 곳에서 웅크리고」: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광활한 곳에 이른 기쁨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함. 창의적 사고
부대끼다가 갑자기 넓은 곳으로 빠져나와 손과 발을 펴서 기지개를 켜고 마음과 생각이 확 트이게 되니, 어찌 참소리를 질러 억눌렀던 정을 다 크게 씻어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 갓난아이의 울음처럼 넓은 곳에 처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울어야 한다고 답함.

그러므로 갓난아이의 거짓과 조작이 없는 참소리를 응당 본받는다면, ^{즐겁고 기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울음소리} 금강산 비로봉에 올라 동해를 바라봄에 한바탕 울 적당한 장소가 될 것이고, 황해도 통곡할 만한 자리의 예① 장연(長淵)의 금모래 사장에 가도 한바탕 울 장소가 될 것이네. 「지금 요동 들판에 ^{통곡할 만한 자리의 예②} 임해서 여기부터 산해관(山海關)까지 일천이백 리가 도무지 사방에 한 점의」: 글쓴이가 비유적으로 묘사한 요동 벌판의 광활한 모습
산이라고는 없이, 하늘 끝과 땅끝이 마치 ^{집승의 가죽, 힘줄, 뼈 따위를 고아서 굳힌 끈끈한 것} 아교로 붙인 듯, 실로 꿰맨 듯하고 고금의 비와 구름만이 창창하니, 여기가 바로 한바탕 울어 볼 장소가 아니겠는가? ▶ 요동 벌판의 광활함을 확인하고 느낌을 정리함.

한낮에는 매우 더웠다. 「말을 달려 고려총(高麗叢), 아미장(阿彌庄)을 지나서 길을 나누어 갔다. 나는 ^{여정, 견문, 감상이 모두 드러남.} 주부 조달동, 변군, 박래원, 정 진사, 겸인(僉人) 이학령과 함께 옛 요동으로 들어갔다. 변화하고 풍부하기는 봉성의 열 배쯤 되니 따로 요동 여행기를 써 놓았다. 서문을 나서서 백담을 구경하니 그 제조의 공교하고 화려하며 웅장함이 가히 요동 벌판과 맞먹을 만하다.」 따로 백담에 대해 적은 <백담기(白塔記)>가 뒤편에 있다. ▶ 요동 벌판을 떠나 중국 여행을 계속함.

작품의 구성

기	글쓴이가 요동 벌판을 보고 '통곡하기 좋은 곳'이라고 말함.
승	문 정 진사가 통곡하기 좋은 곳이라고 말한 까닭을 물음.
	답 사람은 칠정, 즉 모든 감정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된다고 답함.
전	문 정 진사가 칠정 가운데 어느 정에 의해 울어야 하는지 물음.
	답 갓난아이가 세상에 나와 터뜨리는 울음과 같이 넓은 곳에 처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울면 된다고 답함.
결	요동 벌판의 광활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어지는 여정과 백담에 대한 감상을 밝힘.



내가 읽은 <통곡할 만한 자리>

📍 작품의 내용 정리하기

정 진사의 물음 1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 (이)라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

글쓴이의 답 1

칠정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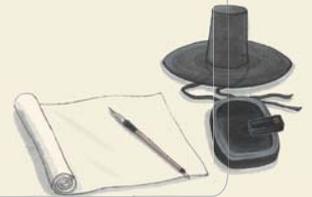
정 진사의 물음 2

칠정 가운데 어느 정으로 울어야 하는가?

글쓴이의 답 2

갓난아이의 참소리를 본받아서 캄캄하고 좁은 곳에 있다가 넓은 곳으로 나와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의 정으로 울면 된다.

📍 작품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더 찾아보고 싶은 점 써 보기



📖 박지원(1737~1805) 작가 동영상

조선 후기의 문신·실학자. 호는 연암(燕巖). 이용후생의 실학사상을 강조한 여러 편의 수필과 소설을 썼다. 지은 책으로 <열하일기>, <연암집> 등이 있다.

한 걸음 더 소리와 빛갈이란 내 마음 밖에서 생기는 바깥 사물이다. 이 바깥 사물이 항상 사람의 귀와 눈에 닿을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똑바로 보고 듣지 못하게 만든다.

- 박지원,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

<열하일기>에 실린 작품으로, 하룻밤에 강물을 아홉 번 건너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를 서술한 한문 수필. 외물(外物)에 현혹되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강조함. (4) 교술 갈래의 이해 61

1

글쓴이의 발상과 표현 파악하기

지도 방안
글쓴이가 작품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 대상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는 활동이다. 교술 갈래는 글쓴이가 자신의 체험과 생각을 직접 전달하는 갈래이기 때문에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남을 이해하게 한다.

1 <통곡할 만한 자리>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을 정리해 보자.

대상	대상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관점
요동 별판	[예시답] 한바탕 통곡하고 싶다.
울음	[예시답] 인간의 칠정, 즉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의 모든 감정이 극에 이르면 울게 된다.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의 울음	[예시답] 캄캄하게 막힌 태중에 갇혀 있다가 넓은 세상으로 나와 즐겁고 기뻐서 우는 것이다.

지도 방안
글쓴이의 관점을 평가하면서 글 속에 담긴 글쓴이의 개성을 확인해 보는 활동이다. 대상을 바라보는 정 진사(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찾아 정리해 보고, 이를 글쓴이의 관점과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위에서 정리한 글쓴이의 관점이 참신하다고 생각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예시답] 정 진사와 같은 보통의 사람들은 요동 별판을 보고 그 광활함에 경탄할 것이고, 울음은 슬플 때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갓난아이가 우는 것은 앞으로 무수한 허물과 근심을 겪게 될 인생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관점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글쓴이의 관점은 매우 참신하다.

지도 방안
이 글에 활용되고 있는 비유적 표현과 그 가치를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재미난 그 비유 신묘도 해라.'를 참고하여 답할 수 있게 한다.

3 다음 한시 <요야>를 읽고, 시적 화자가 <통곡할 만한 자리>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핵심 정리	
갈래	한시, 오언 고시
성격	체험적, 영탄적, 예찬적
제재	광활한 요동 별판
주제	광활한 요동 별판에 대한 감탄
특징	박지원의 <통곡할 만한 자리>를 인용하여 요동 별판에서 느낀 경외심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천추의 커다란 울음터라니
박지원이 요동 별판을 보고 통곡할 만하다고 한 것
재미난 그 비유 신묘도 해라.
박지원의 생각에 대한 평가

갓 태어난 꿩덩이 어린아이가
세상 나와 우는 것에 비유하였네.] 평가의 근거

●천추(千秋) 오래고 긴 세월, 또는 먼 미래.

千秋大哭場
천추 대곡장
戲喻仍妙詮 ▶ '천추의 커다란 울음터'라는 표현에 대한 평가
희유 영묘전
譬之初生兒
비지초생아 ▶ '신묘하다'고 평가한 이유
출세이제선
- 김정희, <요야(遼野)> 중에서

[예시답] 시적 화자는 <통곡할 만한 자리>가 비유적 표현을 잘 활용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1 다음 자료를 읽고, 글쓰이의 가치관을 알아보자. ▶ 지문 듣기

자료 1

• 박지원(朴趾源): 조선 정조 때의 문장가·실학자. 정조 4년(1780)에 진하사(進賀使, 조선 시대에 중국 황실에 경사가 있을 때에 축하의 뜻으로 보내던 사절) 박명원의 수행원으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열하일기》를 저술하였다. 북학론을 주장하였고,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학을 강조하였다.

기구를 편리하게 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하게 하여, 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함.
 • 북학파(北學派): 조선 영조·정조 때에 북학을 주장한 실학의 한 파. 청나라의 앞선 문물제도 및 생활 양식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 학파로, 특히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에 관심을 쏟았다. 이덕무, 박지원, 홍대용, 박제가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 《열하일기(熱河日記)》: 조선 정조 4년(1780)에 박지원이 지은 책. 중국 청나라 사신단으로 열하(熱河)까지 갔을 때의 견문을 정리하여 집필한 것이다. 청나라의 발전된 모습과 서양의 새로운 학문을 소개하였으며, <허생전>, <호질> 등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다.

호랑이를 통해 도학자의 위선을 신랄하게 꾸짖는 내용을 담은 소설 - 《표준국어대사전》

→ 허생의 상행위를 통해 당시 허약한 국가 경제를 비판하고, 양반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풍자한 소설



참고 자료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의 의미

조선의 낙후된 현실과 혼탁한 정치 상황, 양반 사회의 타락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은둔 생활을 하던 연암에게 요동 벌판은 개방적이고 다양한 선진 문물이 있는 공간, 고루한 인습이 존재하지 않는 해방의 공간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연암이 광활한 요동 벌판을 보고 울고 싶은 자리라고 말한 이유는, 벌판을 보는 기쁨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청나라에 뒤처진 조선의 현실을 생각하며 느끼는 슬픔의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지도 방안

글쓰이와 관련된 자료를 읽고,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 글쓰이의 가치관을 파악하는 활동이다. 역사적 상황과 인물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지도 방안

글쓰이가 이 글에서 활용한 비유적 표현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글쓰이의 가치관과 갓난아이의 울음에 대한 독창적인 관점을 서술한 본문의 내용을 떠올려 보게 한다.

자료 2

• 《호곡장기(好哭場記)》: 《열하일기》에 수록된 글로, '통곡할 만한 자리'는 '호곡장(好哭場)'을 우리말로 바꾼 것이다. 광활한 벌판을 마주하고 느낀 벽찬 감정을 울음이라고 표현하여 태초의 공간을 마주한 듯한 감동을 드러내고 있다. 북학파였던 박지원의 학문 세계와 가치관, 《열하일기》가 담고 있는 주제 의식 등을 고려한다면 이 울음은 비좁은 조선 땅에서 벗어나 발전된 청나라에 당도한 글쓰이가 느낀 시대적 감동이기도 하다.

(1) 글쓰이가 이 작품을 쓴 까닭을 생각해 보자.

예시답 청나라의 앞선 문물을 배우고 받아들여 경직된 조선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2) 이 작품에서 '갓난아이의 울음'이 무엇을 비유한 것인지 정리해 보자.

글쓰이가 좁고 답답한 조선 에서 나와서 새롭고 발전된 문명의 나라라고 생각한 청나라 (으)로 들어서면서 받은 감동(감격) 을/를 비유한 것이다.

3

교술 갈래의 특징 이해하기

핵심 정리

갈래	현대 수필, 경수필
성격	사색적, 교훈적, 일상적
제재	텃밭을 가꾸는 일
주제	밭을 가꾸면서 얻은 깨달음, 생명을 돌보고 가꾸는 일의 소중함
특징	① 일상적인 사건으로부터 인생의 깨달음을 도출함. ② 주제를 은유적, 설의적으로 제시함.

지도 방안

고전 수필과 현대 수필을 읽고, 교술 갈래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이다.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두 작품을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① 다음은 현대 수필 <반 통의 물>이다. <통곡할 만한 자리>와 이 작품을 바탕으로 하여 교술 갈래의 특징에 해당하는 설명을 골라 보자. **지문 듣기** **제재 정리**

밭 바로 옆에는 우물이나 수도가 없다. 조금 걸어가야 그 마을 사람들에게 용수를 공급하는 수로가 있는데, 호스나 관으로 연결하기에는 거리가 제법 된다. 또 그 러기에는 작은 밭에 너무 수선스러운 일인 것 같아 그냥 물을 한 통 한 통 길어다 주었다. 푸성귀들을 키우는 것은 물이 아니라 농부의 발소리라는 말이 그냥 나온 사람이 가꾼 채소나 저절로 난 나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게 아닌가 보다. 우리 밭을 흡족하게 적시려면 수로까지 적어도 열 번은 왕복을 해야 하니 그것도 만만치 않은 노릇이었다. **▶ 밭에 물을 주는 일의 어려움**

물통을 들고 걸을 때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텃밭을 일구시는 어떤 할아버지인데, 물을 주러 가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다. 그 할아버지는 몸 반쪽이 마비되어 걷는 게 그리 자유롭지 못하시다. 성한 한쪽 팔로 물통을 들고 걸어가시는 모습은 거의 몸부림에 가까우면서도 이상한 평화 같은 걸 느끼게 한다. **▶ 생명을 길러 내기 위한 고귀한 희생이므로** 절뚝절뚝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물은 찰랑거리면서 그의 낡은 바지를 적시고 길 위에 쏟아져, 결국 반 통도 채 남지 않게 된다. 그렇게 몇 번씩 오가는 걸 나는 때로는 끝없이 지나가는 발소리로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마른 길 위에 휘청휘청 내고 간 젖은 길을 보고 알기도 한다.

▶ 불편한 몸으로 텃밭에 물을 주러 가시는 이웃 할아버지의 모습 그 젖은 길은 이내 말라 버리곤 했지만, 나는 그 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을 별로 보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 역시 그 밭의 채소들처럼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반 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발소리를.

▶ 할아버지의 모습에 대한 예찬 물통을 나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 내가 열 번 오가야 할 것을 그 할아버지는 스무 번 오가야 할 것이지만, 내가 이 채소들을 키우는 일도 그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인간됨 때문은 아닐까.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문득문득 마음 한쪽이 굳어져 가는 걸 느끼면서, 절뚝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남은 반 통의 물을 살아 있는 것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아니었을까.

▶ 생명체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 생명을 돌보고 가꾸는 일의 가치를 깨달음. - 나희덕, <반 통의 물>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가상의 존재인 서술자가 등장한다.

개인적이고 진솔한 표현을 활용한다.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서술한다.

글쓰이의 개성과 가치관이 잘 드러난다.





참고 자료

평가 자료

- 소단원 평가
- 쪽지 시험
- 여휘 평가
- 서술형 평가

소단원 정리하기

지도 방안

이 소단원은 교술 갈래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이다. 교술 갈래는 화자나 서술자를 설정하지 않고 글쓴이가 직접 자신의 생각이나 체험을 전달하는 갈래이기 때문에 글쓴이의 독특한 개성과 창의적인 발상이 잘 드러남을 지도하도록 한다.

교술 갈래

개념

구체적인 사실이나 글쓴이의 경험과 사색을 서술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문학 양식.

하위 갈래

설(說), 기(記), 일기, 편지, 기행문, 비평, 수필 등

수필의 특징

- 수필은 글쓴이가 자신의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감동, 교훈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 비교적 형식이 자유롭고, 발상과 표현 면에서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난다.
- 주관적이고 자기 고백적인 성격을 드러내기도 하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을 드러내기도 한다.

<통곡할 만한 자리>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개성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

‘갓난아이’의 비유

‘한나라 가옥’의 사례

이 작품에는 대상을 바라보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발상, 비유와 구체적인 예시의 활용 등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글쓴이의 개성은 광활한 요동 벌판에서 느끼는 감회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여휘 점검하기

지도 방안

우리나라 고유의 거리 단위에 대해 학습하는 활동이다. 고전 문학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단위들과 아직 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위들의 명칭과 의미를 추가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보기>의 단어는 거리의 단위를 나타낸다. 제시된 문장의 밑줄 친 거리를 가까운 순으로 배열해 보자.

보기

- 리 거리의 단위. 1리는 약 0.393km에 해당한다.
 보 거리의 단위. 1보는 한 걸음 정도의 거리이다.
 마장 거리의 단위. 오 리나 십 리가 못 되는 거리를 이른다.

- (1)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 (2) 이미 식구들은 한 마장도 넘게 걸어서 지쳐 있었다.
- (3) 훗날을 기약하며 이 보 전진을 위해 일 보 후퇴하겠다.

이 보

, 한 마장

, 천 리



대단원 갈무리

평가 자료

- 대단원 평가
- 수행 평가

배운 내용을 점검해 봅시다.

지도 방안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게 한다. 각 항목의 내용을 모둠에서 서로 설명해 주도록 하면 효과적이다. 학생들이 점검하기 어려워하는 항목의 경우, 관련된 활동을 제시하여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안내한다.

(1) 서정 갈래의 이해	서정 갈래의 개념과 특징, 문학적 형상화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 교과서 15~20쪽	○△×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를 알고,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이해하였다. → 교과서 15~20쪽	○△×
(2) 서사 갈래의 이해	서사 갈래의 개념과 특징, 문학적 형상화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 교과서 23~38쪽	○△×
	인물과 사건, 배경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주제를 정리할 수 있다. → 교과서 23~38쪽	○△×
(3) 극 갈래의 이해	극 갈래의 개념과 특징, 문학적 형상화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 교과서 41~54쪽	○△×
	작품 속 갈등의 내용과 그 해소 과정을 이해하였다. → 교과서 41~54쪽	○△×
(4) 교술 갈래의 이해	교술 갈래의 개념과 특징, 문학적 형상화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 교과서 57~64쪽	○△×
	글쓰기의 독특한 발상과 개성 있는 표현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교과서 57~64쪽	○△×

문화 향유

자기성찰·계발

이 단원을 배운 후 자신이 가장 발전한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비판적·창의적 사고 자료·정보 활용 의사소통
 공동체·대인 관계 문화 향유 자기성찰·계발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지도 방안

이 단원에서 배운 학습 내용을 교실 밖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문학 작품을 접했던 구체적인 경험을 예시로 들어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좋다.

문학의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문학 작품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 앞으로는 문학의 구성 요소를 모두 고려해서 균형 있게 문학 작품을 감상해야겠어.

나는



내가 선택하는
창의·융합 활동

지도 방안

창의·융합 활동에서는 이 단원에서 배운 문학의 갈래와 주요 개념, 특징 및 문학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창의적인 문학 활동을 해 본다. 연극하기, 가상 면담하기, 문학 지도 만들기, 소설 쓰기 등의 활동을 해 보면서 문학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수용하며,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듣기·말하기 문학

작가와
가상 면담하기

작가와 작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작가의 삶, 작품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만들고 질문에 답을 해 보자.

→ 독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을 정리하여 질문을 만들고, 작가의 입장이 되어 충실하게 답해 본다.

창의·융합 활동지

문학 연극

소설을 희곡으로 재구성하여
연극하기

소설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선정하여 이를 희곡으로 재구성하고, 직접 연극을 해 보자.

→ 친구들과 함께 모둠을 구성하여 희곡으로 바꾸어 써 보고, 역할을 분담해 본다.

창의·융합 활동지



문학 사회

우리 지역
문학 지도 만들기

우리 지역이 등장하는 작품을 선정하고, 관련 장소 또는 지명을 작품의 내용과 함께 소개하는 지도를 만들어 보자.

→ 지역의 현재 모습과 작품 속 모습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를 꾸며 본다.

창의·융합 활동지

문학 인물

시적 화자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 쓰기

시적 화자의 상황, 정서와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시적 화자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써 보자.

→ 시적 화자의 처지를 상상하여 사건과 갈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

창의·융합 활동지

선택 활동 해 보기

68~69쪽의 활동은 위의 여러 가지 창의·융합 활동 가운데 '소설을 희곡으로 재구성하여 연극하기'이다. 선정된 문학 작품을 다른 갈래로 바꾸어 쓰고, 직접 연극을 해 보면서 문학 갈래의 형식과 표현 방법 그리고 문학적 효과를 파악해 보자.



1

작품 선정 및 탐구하기

모듬별로 작품을 선정하고, 선정된 작품의 구성 요소를 정리한다.

2

희곡으로 바꾸어 쓰기

희곡의 형식에 맞추어 작품을 재구성한다.

3

연극으로 공연하기

모듬별로 희곡의 내용을 실제 연극으로 공연하고, 소감을 발표한다.

4

평가하기

희곡 작품과 연극의 내용을 평가한다.

지도 시 유의점

- 연극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배경지식을 미리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 모듬 구성원들 모두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 평가하는 과정을 추가할 수 있다.
- 재구성한 희곡을 학급 전체가 함께 공유해서 읽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한다.

문학 + 연극

소설을 희곡으로 재구성하여

연극하기

이 활동은 소설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골라 희곡으로 재구성하고, 실제 연극으로 공연한 뒤 평가해 봄으로써 문학 갈래의 특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활동이다. 희곡의 갈래적 특성을 반영하여 작품을 구성하면서 문학 갈래에 적절한 형식과 표현 방법을 익힐 수 있으며, 나아가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1 작품 선정 및 탐구하기

선정한 작품	예시답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인물, 배경, 사건	예시답 • 인물: 황만근, 마을 사람들, 어머니, 민 씨 • 배경: 1990년대, 농촌 마을 신대리 • 사건: 황만근의 실종과 죽음
중심 갈등	예시답 황만근의 실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선정한 장면과 그 이유	예시답 경운기를 타고 간 황만근이 마을에 돌아오지 않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발단 부분이 황만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입장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어서 선정함.

2 희곡으로 바꾸어 쓰기

1 등장인물 설정하기

- 예시답** • 황만근(각색 장면에서 실제로 등장하지는 않음.)
• 민 씨(사건의 전말 파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물로 설정함.)
• 이장(황만근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설정함.)
• 마을 사람들(황재석, 황동수 등)

• 하나의 장면을 진행시킨 시간 동안 한 정된 공간에서 연기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도 된다.
• 장면의 극적 효과를 살리기 위해 원래의 작품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을 추가할 수도 있다.

2 해설에 들어갈 내용 정리하기

- 예시답** • 등장인물: 민 씨, 이장, 그 외 마을 사람들(황재석, 황동수 등 다수)
• 배경: 1990년대, 농촌 마을 신대리
• 무대 장치: 무대 중앙에 마을 회관이 있고, 마을 회관 앞에는 등나무 덩굴이 있으며, 그 앞 평상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희곡의 첫머리에서 등장인물, 배경, 무대 장치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이다.

3 희곡으로 재구성하기

 **예시답** 이장: (골치가 아프다는 듯) 만그인지 반그인지 그 바보 자식 하나 때문에 소여물도 못 하러 가고 이기 뭐라. 스무 바리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굶는 기 중요한가, 바보 자식 하나가 어데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기 중요한가, 씨그랄.

황재석: (걱정이 되는 듯) 그래도 질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마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양 없어지는 기 어디 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이라. 반그이. 아이다, 만그이가 어게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분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황동수: (우스갯소리를 하듯) 아이지요. 어르신. 가가 군대 간다 갔을 때 여운지 토깨인지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 왔시다.

여기저기서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민 씨: (답답하다는 듯) 어제 썰기 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썰기 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사람들이 서로 마주 보다가 고개를 흔들다.

이장: (빈정거리듯) 사람이라고 밧 밧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도 모았다는 기 백 밧이나 뭤라나 말라나 한데 반그이는 돼지고 기 반 근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관께.

3 연극으로 공연하기

연극 전	역할 분담하기	예시답 민 씨: 나, 이장: 김○○, 황재석: 이○○, 황동수: 정○○, 무대 장치: 김○○, 음향 효과: 박○○	배우, 연출, 무대 장치 담당 등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한다.
	공연할 때 고려할 점 논의하기	예시답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무대에 오를 수 없으니 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을 무대 뒤편에 그림자 형식으로 세우고, 음향 효과를 이용하여 이들의 반응을 제시함.	
연극 중	공연 및 감상하기		
연극 후	소감 발표하기	예시답 반편이 취급을 받던 황만근이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이 그에 대해 떠올리며 인물의 가치와 됴됨이를 생각해 보게 한다는 점에서 좋은 연극 공연이었음.	

4 평가하기

				
작품 선정 및 재구성	연극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였는가?	상	중	하
	희곡의 갈래적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작품을 재구성하였는가?	상	중	하
표현의 적절성	해설, 대사, 지시문에 따라 정확하게 연기를 하였는가?	상	중	하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작품의 내용이 잘 구현되었는가?	상	중	하
연출 효과 및 태도	소품, 조명, 음향 효과 등 적절한 무대 장치를 활용하였는가?	상	중	하
	연기자들은 공연에 진지하게 참여하였는가?	상	중	하